

국어 영역 (B 형)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홀수형

[1~3] 다음은 학습 활동 과제에 따라 진행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모의 협상]

회사 측: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자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사 측: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측: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히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진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회사 측: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 대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저희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청 측: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신다면 가격 할인 없이도 회사 측에 운송비 절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측: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 참여자 양측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 ②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③ 협상 방법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
- ④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2.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3.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협상 주제	제안
회사 측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시청 측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 ①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②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군.
- ④ 제안하는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⑤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이군.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호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호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다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긴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호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호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7] <보기 1>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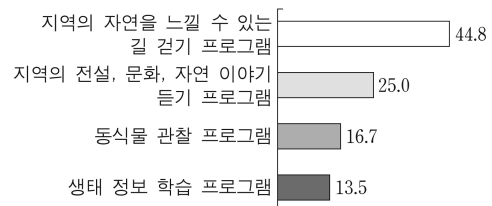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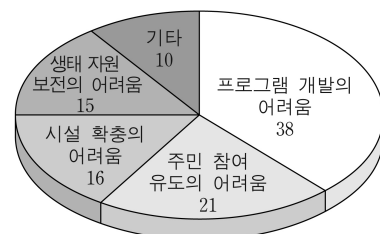
최근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늪지가 사라지거나 관광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조사 자료

1.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2. 지방 자치 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 어려움(%)



(다) 우수 사례

- □□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됨.
- 철새 도래지인 ○○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계 소득이 증대됨.

<보기 2>

- 서론: 생태 관광의 의의와 현황
- 본론
 - 1. 문제점 분석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 2. 개선 방안 제시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 결론: 바람직한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 촉구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계의 훼손' 문제를 다룬다.
- ② (가)와 (나)-2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③ (나)-1과 (다)에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를 보존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④ (다)에서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을 다룬다.
- ⑤ (나)-1에서 지역의 자연이나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룬다.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① 자연을 즐기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연을 충분히 즐기되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② 생태 관광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한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용인원을 제한해야 자연을 보전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구경하느라 철새를 쫓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태 관광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관광이 되어야 한다.
- ④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을 관찰할 때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 ⑤ 관광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승용차 배기가스로 인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상품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8. <보기>의 항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
- ㄴ.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 ㄷ.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
- ㄹ.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ㅁ.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

<답사 보고서>

제 목: 담양 일대의 정자를 다녀와서
 작성일: 2013년 ○월 ○일
 작성자: □□ 고등학교 '우리 문화 유적 탐방 모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자 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한다. 답사 전에 읽어 본 책에 의하면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 시대 선비 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담양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었다. 우리를 안내해 준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사화를 겪은 후 낙향한 김윤제가 지은 정자로, 정철 등과 교유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 이 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인 소쇄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원은 16세기에 양산보가 지은 원림으로,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정자를 두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 돌아보았던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꿔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답사지를 떠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 ④ ㄷ, ㄹ ⑤ ㄹ, ㅁ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신문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여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을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댓글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①
-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야지. ②
-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③
-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④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⑤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빠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③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④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⑤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렇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곁-옷[거돋], 헛-웃음[허두숨]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거나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누]로 발음한다.

예 답-요[답노], 홀-이불[혼니불]

- | | |
|---------|-------|
| ㉠ | ㉡ |
| ① [꼰니랑] | [꼬도목] |
| ② [꼰니랑] | [꼬초목] |
| ③ [꼰니랑] | [꼰노목] |
| ④ [꼬디랑] | [꼬초목] |
| ⑤ [꼬디랑] | [꼬도목] |

13.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과 ‘▽’가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ㅁ’은 ‘ㄷ’과 ‘ㄷ이’, ‘ㅂ’은 ‘ㄷ’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쑥·미 中 國·국·에 달·아 文 明·중·와·로 서르
스뵈·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생·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ㅁ·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ᄒ·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를 여·들 字·중·를 ㅁ·ᄒ·노·니
:사·름·마·다 :히·ᄒ·ᄒ :수·비 니·겨 ·날·로 ·부·메 便·安·한
·키 ᄒ·고·져 홀 썩·르·미·나·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ㅁ·들’의 ‘ㅁ’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중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ᄒ·ᄒ’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부·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것을 버리면서 읽되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루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했다. 이상은 용촌(榕村) 이광지(李光地)의 독서 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17.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겠어.
-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18.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차례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둘째,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빠르게 훑어 읽는다. 셋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책을 읽는다.

-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읽는다.
-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읽는다.
-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四書)는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로 그 체제와 내용이 정밀하여 얇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後四書)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환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매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사서 육경(四書六經)과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 | | | |
|---|-----|-----|
| ① | ㉢ a | ㉤ b |
| ② | ㉢ a | ㉤ c |
| ③ | ㉢ b | ㉤ a |
| ④ | ㉢ c | ㉤ a |
| ⑤ | ㉢ c | ㉤ b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4.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자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 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 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 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팽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 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28.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29.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30. <보기>와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별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다.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임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궁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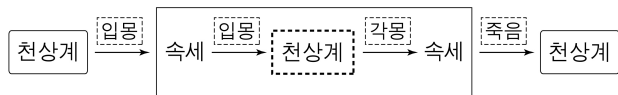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어
- ② ㉡: 멍하니
- ③ ㉢: 이끌어
- ④ ㉣: 눈부신데
- ⑤ ㉤: 어울리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대체 박준은 어쩌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겨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쩌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A]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이청준, 「소문의 벽」—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회웁고
니 므음 둘 더 업서 냇ᄃᆞ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니 온 곳ᄃᆞ여 우리 밤길 네뵈다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어논다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 그를 슬허 호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 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
草)ᄃᆞ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호노라

- 원천석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회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니 온 곳ᄃᆞ여'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네뵈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는 각박한 세대의 체질을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넛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전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넌가 붓으로 그려넌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툇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툇밤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찌르르 찌르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A]

[B]

[C]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툇툇밤’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들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높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처럼—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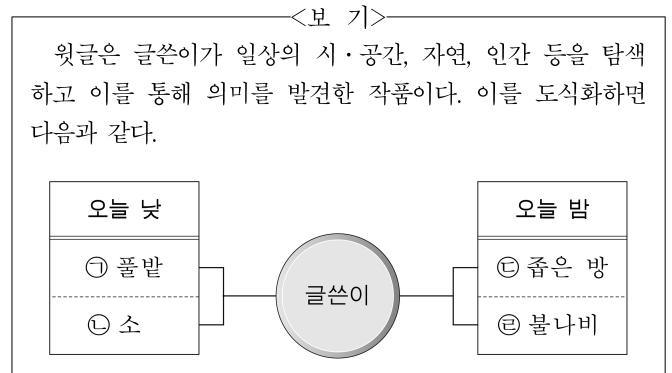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3	②	2	25	②	2	37	⑤	3
2	③	2	14	⑤	2	26	③	2	38	①	2
3	②	3	15	③	2	27	②	3	39	⑤	2
4	④	2	16	③	3	28	⑤	2	40	②	3
5	①	2	17	④	2	29	④	2	41	④	2
6	③	2	18	④	2	30	①	3	42	⑤	2
7	④	3	19	⑤	2	31	③	2	43	③	3
8	⑤	2	20	③	2	32	③	2	44	①	2
9	②	2	21	②	3	33	①	3	45	④	2
10	⑤	2	22	⑤	2	34	⑤	2			
11	②	2	23	⑤	2	35	①	2			
12	①	2	24	①	2	36	③	2			

국어 영역 (A형)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홀수형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재은: 성아야, 같이 가. 어? 그거 수민이 가방 아니야?
 성아: 응, 수민이가 보진실에 있는데 조퇴하려고 하거든.
 재은: ㉠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주는 거구나. 저번에 내가 다쳤을 때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더니, ㉡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김성아야.
 성아: (웃으며) 고마워. 언제나 네 말을 들으면 힘이 나.
 재은: 근데 너, 아까 점심시간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성아: 어? (잠시 말을 머뭇거리며) 그게
 재은: 뭔데? 얘기해 봐.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
 성아: 음, ㉢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번 전교 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면 어떨까?
 재은: 정말? 훌륭한데! 그런데 갑자기 왜?
 성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잠깐 임시 반장을 했었잖아. 학기 초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들이 친해지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어. 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전교 학생 회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은: 그렇구나. 그런데 너, ㉣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성아: 그랬지. 그런데 막상 임시 반장을 해 보니까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 또 (잠시 침묵)
 재은: ㉤ 그리고? 계속해 봐.
 성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피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복해 보려고.
 재은: 그렇구나. 큰 결심 했다. 나도 도와줄게.
 성아: 고마워. 그런데, 좀 고민되는 게 있어. 선거 운동 기간에 연설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재은: 음, 대중 앞에서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는,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대. 그러니까 (㉠)

1.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 ③ ㉢: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 대화 참여자 간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줄 수 있다.
- ⑤ ㉤: 대화 참여자의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네가 학생 회장으로서는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이 너의 자신감을 높이 살 거야.
- ② 네가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어울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 ③ 네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많은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학생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 ④ 네가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어때? 그 말에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거야.
- ⑤ 네가 학생 회장이 되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해 봐. 그러면 청중은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할 거야.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행자: ‘책 사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우리나라 배』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의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네, 그건 배의 밑 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덕분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용이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전문가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전문가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나온 용어의 개념을 물음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호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호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단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긴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호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호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7] 다음은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방송국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UCC 제작 기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다양한 UCC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아직 UCC 제작 경험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UCC를 제작하고 싶어 하지만 여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제작 기술을 몰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UCC 제작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UCC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를 다룬 보고서를 살펴보면, UCC를 제작해 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보도 더 많이 얻고, 태도도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CC 제작 기술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담당자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의 요구가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의 정서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③ 특정한 독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별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⑤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7.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설문 조사(청소년 대상) (나)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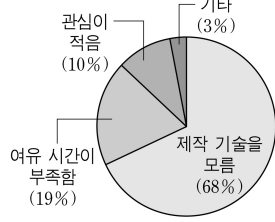
1. UCC 제작 경험

제작 경험	응답(%)
있음	28
없음	72

2. 향후 UCC 제작 의향

제작 의향	응답(%)
있음	89
없음	11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다) 관련 보고서

UCC 제작 활동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UCC 제작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들 중 제작 기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제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학습 만화는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교과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 만화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즐겨 읽게 할 필요가 있다.

[조건]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2.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

- ① 학습 만화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쉽고 짧은 표현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다양한 어휘 습득이 어렵다.
- ② 학습 만화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 그러므로 독자는 학습 만화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
- ④ 학습 만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에만 집중하여 교과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학습 만화는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된다.
- ⑤ 학습 만화는 심화 과목 학습에 기초가 된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만화를 통해 교과 지식을 넓힌다면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신문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 기여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댓글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나눔 도서관의 의미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①
-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야지. ②
-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③
-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④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⑤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③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④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⑤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뻬],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텥]

- ①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③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예’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예 ㉡’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예 ㉠ ①’의 용례에 쓰인 ‘예’는 ‘에서’로 바뀌 쓸 수 없군.
- ⑤ ‘예 ㉠ ②’의 용례에 쓰인 ‘예’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구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그들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홀원소로 존재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조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20. 윗글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쓰였다
- ② ㉡: 튼튼하게
- ③ ㉢: 튀어나와
- ④ ㉣: 그친다고
- ⑤ ㉤: 주는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히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22.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6.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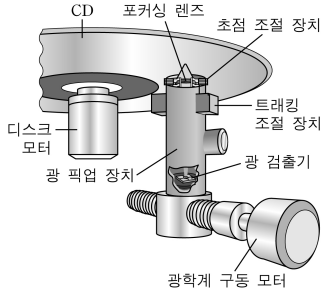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28.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꺼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강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통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

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것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났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댕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유구무언(有口無言) ㉡ 일구이언(一口二言)
- ㉢ 중구난방(衆口難防) ㉣ 진퇴양난(進退兩難)
- ㉤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언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엿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혔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

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체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애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옵고 춘섬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A]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옵는 한편, 인형과 춘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매,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홍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들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높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홍맹한 형리(刑吏)처럼—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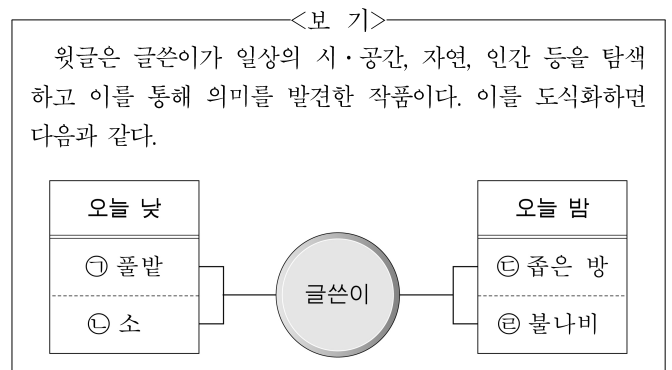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3	④	3	25	⑤	2	37	③	2
2	②	2	14	⑤	2	26	①	2	38	①	2
3	①	3	15	③	2	27	②	3	39	⑤	2
4	④	2	16	⑤	2	28	④	2	40	②	3
5	①	2	17	③	2	29	④	2	41	④	2
6	①	2	18	④	3	30	⑤	3	42	②	2
7	③	3	19	②	2	31	③	2	43	③	3
8	③	2	20	⑤	3	32	④	2	44	①	2
9	②	2	21	④	2	33	②	2	45	④	2
10	⑤	2	22	①	2	34	①	2			
11	③	2	23	③	2	35	④	2			
12	③	2	24	⑤	2	36	⑤	3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B 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연꽃 같은 팔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자 1: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반대자 1: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자 2: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자 2: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쉼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자 1: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찬성자 1: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사회자: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찬성자 1: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자 2: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듣느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찬성자 2: 우리에게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듣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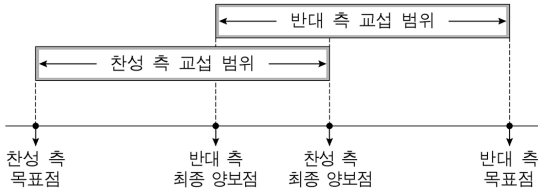
2.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찬성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②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입론의 ‘찬성자 2’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3.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보기 2>

- 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
 ㄴ.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ㄷ.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
 ㄹ.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혜경: ㉠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 글썄…….

혜경: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네 주변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
 ② 네가 인생 경험이 짧는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
 ③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④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⑤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로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6~7] <보기 1>은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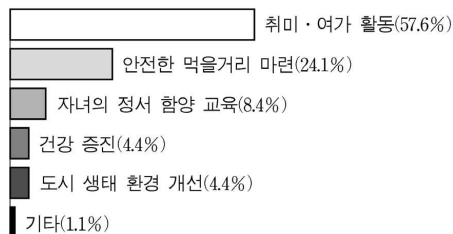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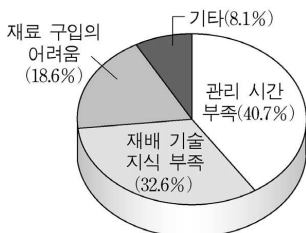
최근 도시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도시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농업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 농업은 도시 생태 환경 개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 형성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농지가 매년 감소하여 경작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시 농업 관련 기술이 낙후되었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나) 설문 조사

1.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



2. 도시 농업 활동에서 겪은 어려운 점



(다) 인터뷰

“우리나라는 제약 요인이 많아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는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건축법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도시 농업을 위한 일정 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농업의 메카인 쿠바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많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농업 연구소장 -

—<보기 2>—

I. 서론

II. 본론

1. 현황

- 가.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나. 귀농 인구의 증가 ㉠
- 다.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

2. 문제점 분석

- 가. 도시 농업에 필요한 경작 공간의 부족
- 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
- 다. 도시 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 부족
- 라. 인력 부족 ㉢
- 마. 도시 농업의 제도적 기반 미흡

3. 개선 방안 ㉣

- 가. 도심지 내 마을 텃밭 조성 ㉤
- 나. 도심지 내 주말 농장 확대 ㉥
- 다. 도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라. 도시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참고하여 ‘II-1’을 작성할 때, ㉠은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② (나)-1을 참고할 때, ㉡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II-1-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도시 농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친다.
- ④ (나)-2, (다)를 참고할 때, ㉤의 하위 항목에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한다.
- ⑤ (가)를 참고하고 ‘II-2-가’를 고려할 때, ㉤과 ㉥을 하나로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한다.

7. <보기 2>의 ‘I. 서론’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을 인용할 것.
-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 ① 도시 농업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농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도시 농업의 기능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
- ②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도시 농부들이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다. 도시 농부가 되려는 도시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 ③ 텃밭을 가꾸어 거둔 농작물을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 농업이 국내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⑤ 도시 곳곳에 푸른 텃밭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것이다. 텃밭 가꾸기를 배우며 도시 농업의 즐거움을 만나 보자.

8.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번지점프는 탄력성이 있는 줄에 몸을 고정하고, 50m 정도의 높이에서 수면이나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낙하할 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번지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번지점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통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소년들은 등나무 줄기에 몸을 묶어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뛰어내린다. 자칫하면 땅에 부딪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조 건>—

-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한다.
-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하지 않는다.
- 반복된 내용이나 부가적인 내용은 압축한다.

- ①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이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하였다.
- ② 바누아투 공화국에서는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통해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전통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번지점프의 기원이다.
- ③ 번지점프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번지점프는 어린 소년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다.
- ④ 번지점프는 밧줄을 몸에 고정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이것은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은 매우 용맹한 전사와 같다.
- ⑤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며 그 순간의 긴장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번지점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시

오늘 작문 과제는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문화유산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때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삼일절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과 단소, 북 연주자들이 연이어 나와 합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관객들 사이에 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악기와 어우러져 한껏 분위기를 ㉡돈구었다. 어느새 구경만 하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벅찬 감동을 받았고 서양 악기와 우리 악기 간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리랑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시’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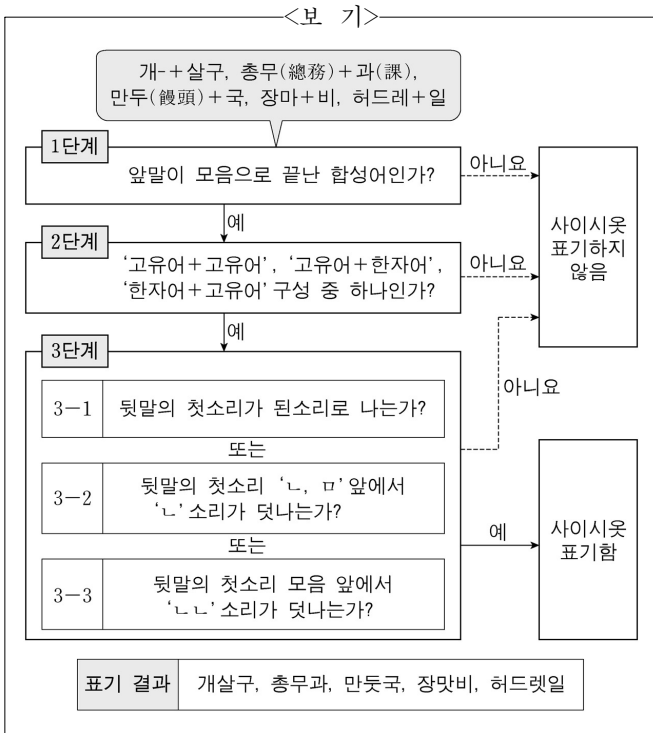
- ㉠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다.
-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다.
-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친다.
- ②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돌우었다’로 고친다.
- ③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12.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포]와 [비]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려’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13.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u>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u>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는</u>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이다</u> .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14.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 생: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 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 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 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라 |
| ④ | 다 | 나 |
| ⑤ | 다 | 라 |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16.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가) ○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 가비야본 소리 드외느니라

[풀이] ○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골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싸미 中囡國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몓디 아 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홀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형 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를여들 字종를 ㉡ ㅁㅇ노니 사름다마 히여 ㉢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안키 호고져 홀 ㉣ ㅅ르미 니라

- 『훈민정음』 언해 -

- | | | | | | |
|---|-----|-----|---|-----|-----|
| | (가) | (나)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 |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류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을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이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도(引導)해야
- ② ㉡: 지시(指示)해야
- ③ ㉢: 개편(改編)했다
- ④ ㉣: 도착(到着)할
- ⑤ ㉤: 쇄신(刷新)하고자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한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전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취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22.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④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VII>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가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과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4.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5.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6.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7.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 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30.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정리한 ‘알고 싶은 점’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2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독서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로 성경이나 주석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세기 들어 그리스 교전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학문적 저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저서를 두루 구해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텍스트가 장, 절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구절 표시가 있는가 하면, 차례나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렇게 얻은 지식들을 논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고 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다.

【알고 싶은 점】

-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을까? ①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②
- 이 시기에 독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③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를까? ④
- 이 시기 책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영(梅影)이 부드러운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рода
이윽고 잔 드러 권(勸)하랴제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흥노라 <제3수>

벗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휘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② ‘잔 드러 권하랴’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를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B]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답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C] 이후로 임금은 곧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D]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불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청주종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출사: 벼슬에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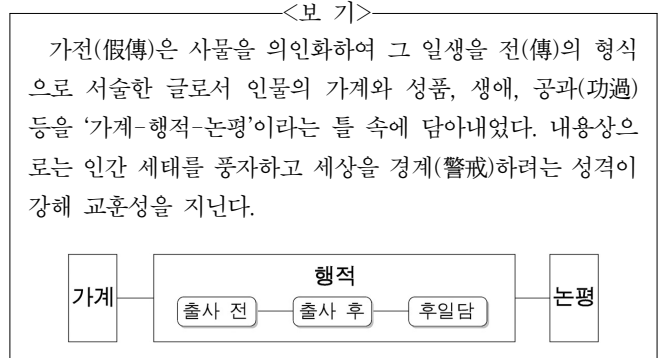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말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꼭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A]

[B]

[C]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되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을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톡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

고, 침이 걸려서 책꽂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42.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피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썩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하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찼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툰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툰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3	③	2	25	②	2	37	①	2
2	②	2	14	①	2	26	④	2	38	④	2
3	①	3	15	③	2	27	②	2	39	③	2
4	②	2	16	⑤	2	28	④	2	40	③	3
5	⑤	2	17	④	2	29	⑤	3	41	②	2
6	②	2	18	④	2	30	⑤	2	42	③	2
7	④	3	19	⑤	3	31	③	2	43	②	3
8	①	2	20	①	2	32	④	2	44	⑤	2
9	①	2	21	①	2	33	⑤	3	45	④	2
10	⑤	2	22	③	2	34	③	2			
11	④	3	23	①	3	35	⑤	2			
12	①	2	24	①	2	36	②	3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A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연꽃 같은 팔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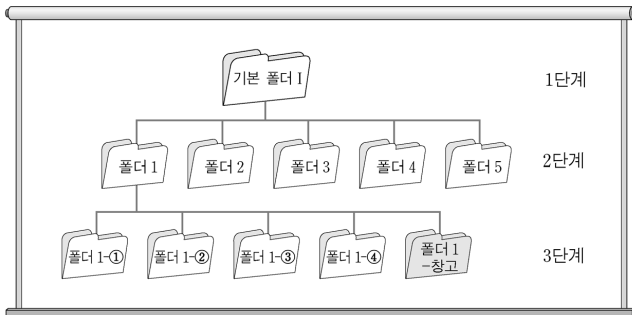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컴퓨터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혹시 중요한 파일을 아무 폴더에나 저장해 두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의 컴퓨터 파일 정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탕 화면에 너무 많은 폴더나 아이콘을 두면 파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바탕 화면에는 기본 폴더들과 자주 쓰는 아이콘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파일은 성격에 따라 폴더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고 자주 쓰는 아이콘은 바탕 화면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의 파일 정리 방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바탕 화면 위치에서 1단계로 기본 폴더를 만들고, 기본 폴더의 성격에 따라 3단계까지 하위 폴더를 생성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할 때 관리하기 가장 쉬웠고 단계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폴더 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폴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활용도는 낮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파일들은 3단계의 '창고'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도 이미 상위 폴더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때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군요.

이와 같이 폴더는 3단계까지 생성하고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로 유지하는 것이 제 파일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 사용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응용만 한다면 파일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 발표 과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였지?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가 반영되고 듣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발표하라고 하셨으니까 ㉠ 내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야겠어. 친구들이 대체로 파일 정리를 귀찮아 하니까 내 발표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친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파일 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 파일 정리 방법은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발표를 정리할 때는 친구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 ㉠ ㉠ ㉡ ㉡ ㉢ ㉢ ㉣ ㉣ ㉤ ㉤

2.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② 발표자는 폴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③ 발표자는 파일을 분류하는 단계가 많을수록 파일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④ 발표자는 사용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자신이 제시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군.
 ⑤ 발표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군.

3. 다음은 대담의 일부이다. ‘학생’과 ‘연구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신문부 기자 ○○○입니다. 교내 신문에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이란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조사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원: 우주인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음료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죠?

학생: 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연구원: 그런 영상에서처럼 물 같은 음료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대를 사용한답니다.

학생: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그럼 액체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먹나요?

연구원: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 과자를 먹다 부스러기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주 정거장 안은 첨단 장비들이 많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먹는 음식물은 가능한 한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요, 먹을 때에도 매우 조심합니다.

학생: 부스러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순 없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떠다니는 상황에서 샤워는 가능한가요?

연구원: 네, 지구에서 하던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물에 젖은 스펀지나 목욕 수건, 젖은 화장지 등을 사용하죠. 양치를 할 때는 삼키는 치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① 학생은 연구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은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연구원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설명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연구원은 답변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상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연구원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지구에서의 생활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혜경: ㉠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 글썄…….

혜경: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 아,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네 주변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
- ② 네가 인생 경험이 짧운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
- ③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겠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 ④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 ⑤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글을 교지에 실고자, (가)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나)를 썼다.

(가) 개요의 초안

주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내용 구성	○ 처음: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실태 조사 의 이유를 밝힘㉠
	○ 중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1.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2.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를 제시함㉢ 3. 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4.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유를 제시함㉤
	○ 끝: 실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

(나) 글의 초안

청소년들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에 주요한 밑거름이 된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독서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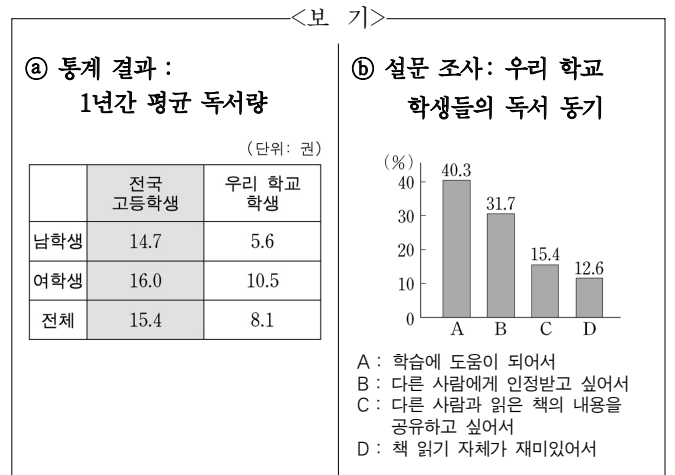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은 것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책을 읽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적었다. 학생들의 약 36%는 1년간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며 32%는 5권 이하를 읽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생들 중 52%는 하루에 단 10분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읽는 전체 책 중에서 판타지 소설은 약 30%, 자기계발서는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습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문구**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에서 남학생의 독서량이 여학생보다 적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를 활용하여 (가)의 ‘중간’에 새로운 항목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를 제시함.’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를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을 비교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④ ㉡를 보면 ‘책 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나)의 끝 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⑤ ㉠과 ㉡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끝 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다.

8. (나)의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두 포함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에요. 졸리면 톱툰이 자듯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시간을 확보 합시다.
 - ② 좋아하는 책 몇 권만 겨우 읽고 있지 않나요?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듯이 넉넉하고 균형 잡힌 독서를 즐기도록 합시다.
 - ③ 책을 적게 읽는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은가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책을 적게 읽으면 생각이 머물지 않습니다.
 - ④ 책 읽기를 즐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까? 시들어 축 처진 풀에 물을 흠뻑 주면 되살아나듯 책을 많이 읽으면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⑤ 음식은 몸을 살찌우는 양식이고 책은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그리고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도록 합시다.

악기와 우리 악기 간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 아리랑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다.
-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다.
-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문화유산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때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삼일절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과 단소, 북 연주자들이 연이어 나와 합주를 하는 것이었다. ㉠ 그러면 관객들 사이에 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악기와 어우러져 한껏 분위기를 ㉡ 돋구었다. 어느새 구경만 하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벅찬 감동을 받았고 서양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친다.
- ②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돋우었다’로 고친다.
- ③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행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진?'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갈-리다¹ ㉠

- ① '갈다' ①의 피동사.
『맷돌에 콩이 갈리다.
- ② '갈다' ②의 피동사.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 '갈다'의 피동사.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를 보니, '갈다'는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와 '갈-리다'를 보니, '갈다'와 '갈다'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를 보니, '갈-리다'는 '갈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 ①을 고려할 때, '갈다' ①의 용례로 '맷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 ②를 고려할 때, '갈다' ②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14.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 생: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 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 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 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다 나
- ⑤ 다 라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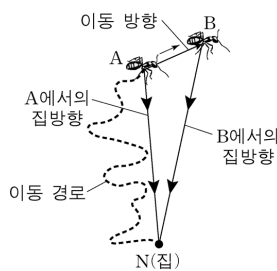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overrightarrow{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rightarrow{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 ③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
- ④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 ⑤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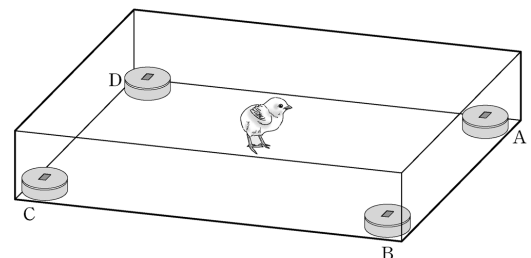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 ③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 ④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 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으려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back projection) 방법이 이용된다.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에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다.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하여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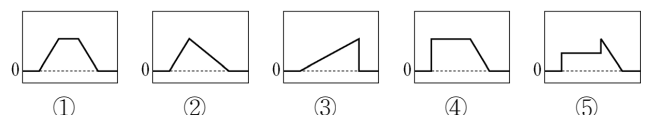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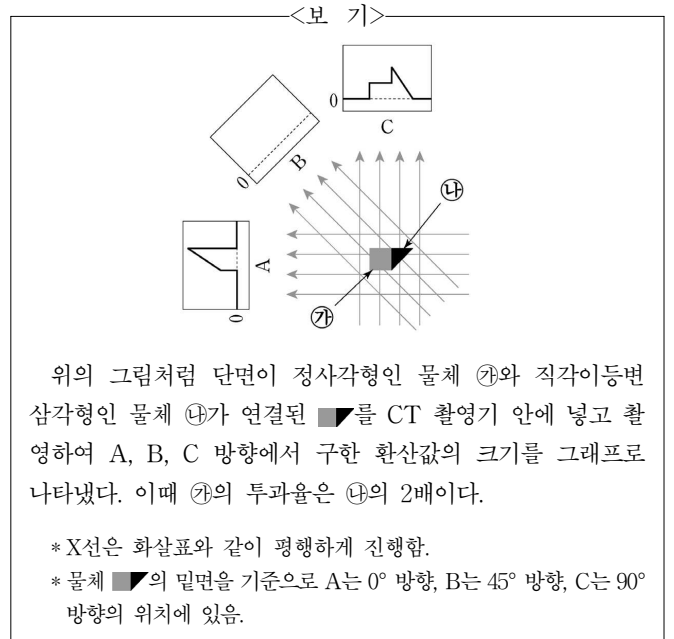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다.
- ②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 ③ CT에서의 환산값은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나타낸다.
- ④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
- ⑤ 조직의 투과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두께가 얇을수록 X선은 더 많이 투과된다.

20.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
- ③ 역투사 결과값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그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 ⑤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 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3점]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과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2.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3.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4.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5.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27.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창과 문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고 크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窓戶)라고 부른다. 이것은 창호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는 건축 구성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쪽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①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뽀얀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2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옥의 창살은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 ②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 ③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다.
- ④ 한옥의 머름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이다.
- ⑤ 한옥에서는 창호의 형태에 따라 창과 문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윗글을 읽고 <보기>의 ㉠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들어열개는 창호의 두 문짝을 잡고 그것을 들어, 처마 밑에 달려 있는 걸쇠에 매달게 한 창호를 말한다.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의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마주보고 있고, 대청 전면의 들어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이다. 들어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모두 창호로 채워지게 된다.



- ① ㉠은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기에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이겠군.
- ② ㉠을 올렸을 때,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지겠군.
- ③ ㉠을 올렸을 때,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 ④ ㉠을 내려 닫았을 때,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겠군.
- ⑤ ㉠을 내려 닫았을 때, ㉠이 벽을 대체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되겠군.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큰 소리로 책을 읽어 보자.
- ② 요즘에는 염상섭을 읽고 있지.
- ③ 이 옛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지?
- ④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⑤ 이 컴퓨터에는 시디(CD)를 읽는 장치가 없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갈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A]

[B]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밑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33.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 2: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 3: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원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중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 것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 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짹짹 소리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거리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는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 **환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들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땀땀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출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빼판 리」 -

* 월삼: 미국 시계 회사 '월섬'.

* 국어: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난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력으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앓을쏘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선군이 잠깐 주막에서 조는데 ㉠ 문득 숙영낭자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군의 곁에 앉아 슬프게 울며 말하기를,

“낭군이 임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기쁘기 측량 없사오나, 첩은 시운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고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전에 낭군의 편지 사연을 듣사온즉 낭군이 첩에게 향한 마음에 감격하오나, 첩은 천생연분이 천박하

[A] 여 벌써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 습니다.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 주 시기를 낭군께 부탁하오니, 낭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 신이 될까 합니다.”

하고 간 데 없었다. ㉡ 선군이 놀라 깨어 보니 온몸에 식은땀 이 나고 심신이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곡절을 헤아리지 못하여 인마를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풍산 촌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문득 하인이 와서,

“상공(相公)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알렸다.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 으로 되시고 들어가서 가내 안부를 여쭙었다.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리고, 선군이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이윽고 선군에게 은근한 말로,

“㉢ 장부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흔한 일이 었다. 내 들으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 기 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 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왕 이 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좋지 않겠 느냐?”

하고 권하였다. 선군은 숙영낭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 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 하되, “㉣ 낭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낭자를 취하게 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이에 아뢰되,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나, 제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아니합 니다.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

하였다.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 하고 밤을 지냈다. 첫답이 울자마자 선군은 인마를 재촉하여 길에 올랐다.

(중략)

㉤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에 들어가 이불을 헤치고 보니, 낭자의 용모가 산 사람 같아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군이 부촉하여 이르기를,

“백선군이 왔으니, 이 칼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몸에서 칼을 빼니, 칼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가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야 선군이 시비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밖에 나와 형구를 벌이고
모든 노복을 차례로 신문하였다. 간악한 매월이 매를 건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

“상공께서 숙영낭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
이 있던 차에 때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 함께 일을
꾸민 놈은 둘이로소이다.”

하거늘, 선군이 크게 노하여 돌이를 또 때리니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하였다. 선군이 이에 매월
을 죽여 숙영낭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났은 예부
터 없지 않았으나, 낭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 슬프다! 모두 나 선군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
[B] 리오. 오늘날 매월의 원수는 갇혔으나 낭자의 화용월태를
어디 가 다시 보리오. 다만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낭자
를 좇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
리로다.”

제문 읽기를 마치매 신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 후 돌이를
본읍에 넘겨 먼 절도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때 상공 부부는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선군이 화평한 얼굴로 재삼 위로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2. 윗글의 **매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낭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몄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4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처음에 과제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왜 자신에게 그런 과제가 주어졌는지 의심한다. 더구나 방해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과제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과제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적극 실행하여 과제를 완수한다. 이로써 주인공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 ① ㉠은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 ② ㉡은 과제 제시의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선군이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은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는 선군의 태도를 알 수 있어.
- ⑤ ㉤은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의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썩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하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찼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툰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툰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짧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2	13	②	2	25	②	2	37	⑤	2
2	②	2	14	①	2	26	③	2	38	③	2
3	②	3	15	③	2	27	①	3	39	④	2
4	②	2	16	④	2	28	②	2	40	⑤	3
5	⑤	2	17	③	2	29	⑤	3	41	⑤	2
6	⑤	2	18	③	3	30	④	2	42	①	2
7	⑤	3	19	④	2	31	①	2	43	①	3
8	②	2	20	②	2	32	③	2	44	⑤	2
9	①	2	21	①	3	33	③	3	45	④	2
10	⑤	2	22	①	2	34	③	2			
11	④	2	23	②	2	35	①	2			
12	③	3	24	④	2	36	①	2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B 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꽃씨들은 흙을 뚫고 얼음을 뚫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위축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청 관광진흥과 정○○ 과장님, 한국 대학교 관광학과 김△△ 교수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 과장님께서 지역 관광 산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 과장: 우리 시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자연 경관이 빼어나서 관광지로서 매력적이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말씀을 들어 보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에 [A] 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 과장님,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 과장: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주세요. (방청객을 확인한다.) 제일 앞줄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고택 주인: 정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중가 고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택이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조상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걸 개방하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하락)

1. [A]의 흐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②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③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대안 비교 분석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④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방안의 장단점 비교
- ⑤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2. 위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자는 발언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 ② 사회자는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 하였다.
- ③ ‘정 과장’은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였다.
- ④ ‘김 교수’는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사례를 들어 뒷받침 하였다.
-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설의적인 질문을 하였다.

3.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정 과장’과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 보자.

시작 단계	• 협상 참여자의 기본 입장 확인
↓	
조정 단계	•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 제시 •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제시 • 실현 가능성, 기대 이익 등에 대한 상호 검토
↓	
해결 단계	•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여 합의

정 과 장	○ ‘고택 주인’에게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①
	○ ‘고택 주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②
	○ ‘고택 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③
고 택 주 인	○ ‘정 과장’이 고택 개방을 전제로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④
	○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요구한다.	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주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한화하는 것이 좋다.

- ①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②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③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④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⑤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6~7] 다음은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설문을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 ㉠

I. 서론 ㉡

II. 본론

1. 현황 분석

- 가. 청소년의 금융 지식 부족의 원인 ㉢
- 나. 또래 집단이 선호하는 유명 상표의 상품 동조 구매
- 다. 상품 광고의 영향을 받은 충동구매

2. 문제 원인 분석

- 가. 상품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심리 ㉣
- 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
- 다. 상품 광고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태도

3. 문제 해결 방안

- 가.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아 존중감 확립
- 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
- 다.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

III. 결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 개선 촉구 및 제언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꾼다.
- ②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로 수정한다.
- ⑤ ㉤은 ‘II-2-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내용을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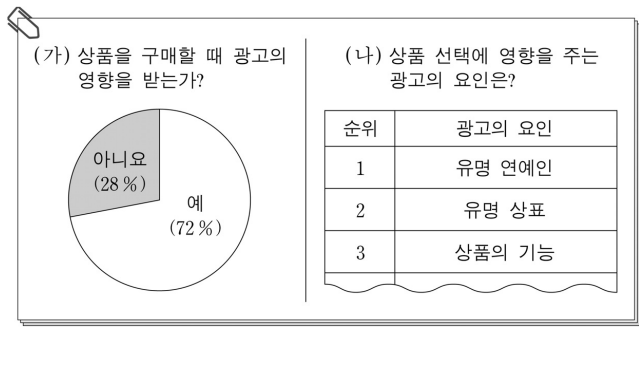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II-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전문가 의견>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상품의 기능이나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하려 한다.

<자료 2: 학급 설문 조사>



- ① 청소년의 충동구매로 빚어지는 소비 문제는 참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진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소비 문제는 광고를 통해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③ 유명 연예인이 자주 출연한 광고가 상품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그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④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라 광고에 대한 접근과 유명 상표의 상품 구매가 쉬워짐으로써 발생하는 청소년 소비 문제는 청소년들의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 ⑤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는 청소년의 소비 문제는 광고 속 상품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8.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 ㉠ 답사 참여자의 선정 과정을 밝혀 답사의 취지를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하며 보고서의 의의를 밝히자.
- ㉢ 답사 목적과 함께 답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을 언급하며 사전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자.
- ㉤ 최근 기사를 활용하여 답사 동기를 제시하자.

<답사 보고서>

*제 목: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다녀와서

*작성일: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고등학교 지리 답사반

1.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얼마 전 00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친구들이 베개 용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에 대해, 그리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베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그곳의 특이한 지형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 베개 용암은 용암이 물과 접촉할 때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베개 모양의 형태로 굳은 용암을 일컫는다.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개 용암은 해저 산맥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잘 발달하는 것이어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문 것이라고 한다. 베개 용암의 형성 과정, 구성 성분 등과 같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이때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그 내용이 2~3배는 더 강력하게 ㉣ 저장되어진다고 한다.

㉤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ㄴ.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한다.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ㄹ.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으로 고쳐 쓴다.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저장된다고'로 고친다.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ㅖ,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ㅖ'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ㅙ]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ㅙ'는 [ㅞ]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항상 [ㄴ]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ㄴ]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게'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금꺠'를 [금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헤'를 [지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비꺠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의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가) (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 (선생님께) “<u>아니요</u>, 모르겠 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

의문점	‘아니요’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	--

↓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 한다. ☞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 한다. ☞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 단어, 어절,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방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고’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여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을】 별에 찌거나 악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① 마눌 > 마늘 | 훈 > 흠 |
| ② 사슴 > 사슴 | ㄹ장 > 가장 |
| ③ 혼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롭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 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론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하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2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22. ㉠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23.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①: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①②: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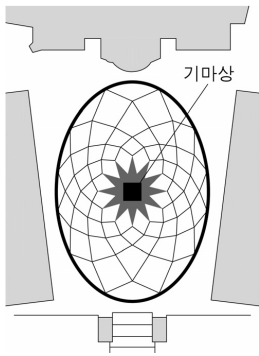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①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①②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켈란젤로는 타원형의 ㉠ 캄피돌리오 광장을 설계하여 로마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광장 중앙에는 옛 로마 황제의 기마상이 놓여 있고 기마상 밑의 바닥에는 12개의 꼭짓점을 지닌 별 모양의 장식이 있다. 광장의 바닥은 기마상에서 뻗어 나온 선들이 교차하여 ㉡ 만들어진 문양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광장의 구성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대칭적으로 조합되어 정제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광장의 타원형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 놓여 있었던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 한다. 옴팔로스는 형태가 달걀형이고 그 표면은 여러 선들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다각형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옴팔로스는 ‘배꼽’을 ㉢ 가리키는 말로 인체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

광장의 전체적인 형태가 옴팔로스와의 같은 타원형이고 광장 바닥의 다각형이 옴팔로스 표면의 다각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캄피돌리오 광장은 그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캄피돌리오 광장은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구현된 공간이기도 하다. 원은 중심과 둘레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둘레를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광장은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을 강조한 공간이다. 광장의 실제 경계는 타원이지만, 사람들이 광장의 어느 곳에서 서 있든 시선은 가운데에 있는 기마상으로 집중하게 되므로 기마상을 광장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 광장의 가운데에 배치된 기마상은 타원이 지닌 두 개의 초점을 ㉣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광장을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 공간처럼 변모시킨 것이다. 타원형의 광장이 집중성을 가진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광장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가 생기게 된다. 위계의 정점은 기마상이다. 주변을 압도하는 세계 지배자의 기마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 위계감은 한층 더 고조된다.

이렇게 광장을 원형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광장의 기마상 아래 놓여 있는 별 장식에 주목하게 되면 광장의 확장된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우주를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회전하며 12개의 구역으로 ㉤ 나누어진 원형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캄피돌리오 광장에 계승되어 북극성은 기마상이 서 있는 별 장식으로, 하늘의 12개 구역은 별 장식의 꼭짓점 개수로 표현된 것이다. 이로써 로마 황제의 기마상은 우주의 중심에 ㉥ 서게 된다.

2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원과 원의 조합은 광장 주변의 위상을 높인다.
- ② 미켈란젤로는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를 광장에 배치했다.
- ③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은 옴팔로스의 확산성을 드러낸다.
- ④ 기마상은 잘게 나뉜 기하학적 문양의 비대칭성을 강조해 준다.
- ⑤ 광장 중심에 놓인 별 장식은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25. 캄피돌리오 광장에 구현된 상징적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옴팔로스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 ② 타원형의 두 초점이 갖는 상징적 의미
- ③ 원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 ④ 고대인이 생각한 북극성의 상징적 의미
- ⑤ 광장의 기마상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26.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뉴욕의 ㉡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건물의 내부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둘레에 나선형 경사로가 있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최상층까지 올라간 뒤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통형 공간의 벽면에 전시된 작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둘레를 향하는 원의 확산적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로에서 바라보이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원통형 공간은 비어 있으므로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은 없다.

- ① ㉠은 ㉡와 달리,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이 중심을 향한다.
- ② ㉠은 ㉡와 달리, 원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위계감이 강조된다.
- ③ ㉡는 ㉠과 달리, 원의 주변이 중앙 공간의 집중성을 강화한다.
- ④ ㉡는 ㉠과 달리, 원의 중심보다 둘레를 강조한 공간 구성을 보인다.
- ⑤ ㉠과 ㉡는 모두 원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형상을 채택하였다.

27.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제조(製造)된 ② ㉣: 지적(指摘)하는
- ③ ㉣: 소진(消盡)되게 ④ ㉤: 분할(分割)된
- ⑤ ㉥: 기립(起立)하게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 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 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
-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 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④ (나)는 결 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30.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확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

(나)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사전(字典)*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펴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좁도록 하여라.

-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

* 사전 :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까.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도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죽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1.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웅이 엎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왈,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왈,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삽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大喜) 왈,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왈,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작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
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
겠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제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왈,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소승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
나이까?”
부인이 칭찬 왈,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왈,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승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중략 줄거리] 조웅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
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찌르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접전하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늘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왈,

“조웅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괴이하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더러 왈,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왈,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陣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며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읍소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B]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지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을 찢어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경적: 적을 얕봄.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웅’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웅’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웅’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웅’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웅’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가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37.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뽁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임 : 냄. '배웅'의 평안 방언.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컷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밧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얹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꾀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얹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야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꺾꺾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뭘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랄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데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열빠진 늑동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깎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홀겉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싹싹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닌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45.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㉔	2	13	㉓	3	25	㉔	2	37	㉑	2
2	㉕	2	14	㉕	2	26	㉓	2	38	㉑	2
3	㉓	3	15	㉕	2	27	㉕	2	39	㉕	2
4	㉔	2	16	㉔	2	28	㉕	2	40	㉓	3
5	㉕	2	17	㉕	2	29	㉑	3	41	㉔	2
6	㉕	2	18	㉑	2	30	㉓	2	42	㉓	2
7	㉕	3	19	㉕	3	31	㉔	2	43	㉔	3
8	㉑	2	20	㉕	2	32	㉑	2	44	㉕	2
9	㉓	2	21	㉕	2	33	㉓	3	45	㉕	2
10	㉔	2	22	㉕	2	34	㉑	2			
11	㉕	2	23	㉕	3	35	㉑	2			
12	㉓	2	24	㉕	2	36	㉔	3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A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꽃씨들은 흙을 뚫고 얼음을 뚫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수미가 발표를 하기 전에 친구들과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미: 과학 시간에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경완: 재미있는 주제네. 추운 겨울에 연못 표면은 얼어도 그 아래쪽은 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발표 시작할 때 이런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주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수미: 그래.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야겠어. 이때는 특정 온도 구간에서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 다른 물질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해야겠네.

지현: 연못 말고 다른 사례를 찾아서 소개해 줘도 좋을 것 같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그리고 이 원리를 알아 두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덧붙이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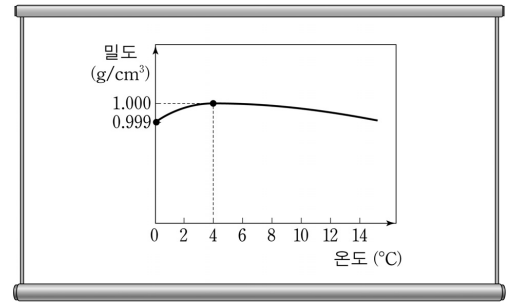
경완: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지.

지현: 마무리할 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질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참,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 잊지 말고.

수미: 고마워. 너희들 얘기가 큰 도움이 됐어.

2. 다음은 수미가 한 발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럼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여 준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보여 줍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물은 4°C에서 0°C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 물이 표면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물 표면의 온도가 4°C보다 낮아지면 위쪽 물의 밀도가 아래쪽 물의 밀도보다 작아지므로 밀도가 작은 물은 위쪽에, 밀도가 큰 물은 아래쪽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표면의 물이 0°C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 물은 표면부터 얼게 되는 겁니다.

1. 다음은 수미가 작성한 발표 계획이다. 대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도입

- 주제 제시
 - 사진과 함께 구체적 사례 제시
 - ㉠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임을 강조

○전개

- ㉡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의 원리 설명
 - 물과 다른 물질의 차이점 언급
- ㉢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제시
- ㉣ 원리를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점 제시

○정리

- ㉤ 질문을 통한 청중의 이해도 점검
- 발표 내용 요약

① ㉠ ② ㉡ ③ ㉢ ④ ㉣ ⑤ ㉤

<보 기>

- ㉠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준 것 같아.
- ㉡ 실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 것 같아.
- ㉢ 원리와 관련된 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 같아.
- ㉣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함으로써, 설명하려는 현상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 같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댓글에 나타난 청취자의 반응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진행자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오늘 문화 초대석에는 벽화 마을로 화제가 되고 있는 ○○ 마을의 박△△ 대표를 모셨습니다. ○○ 마을이 문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요?

박 대표: 네, 저희 마을은 주거 환경이 열악했는데 올해 초 예술 재능 기부자들께서 벽화 30여 점을 그려 주신 덕에 마을 전체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진행자: ○○ 마을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해졌지요?

박 대표: 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다 보니 주민들도 마을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진행자: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느껴지네요. ○○ 마을이 예술 마을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를 나눠 보죠.

번호	내용
759	신문 기사를 보니 그림을 보러 와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758	친구랑 구경 갔을 때 거기 사는 분이 시끄럽다고 화내셔서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해 보니 주민들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57	예쁜 그림을 오래 볼 수 있으려면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이 그림에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756	어제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림이 잘 보존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을지 걱정되네요.

진행자: 올라온 댓글들로부터 ○○ 마을의 당면 과제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종합해서 한 마디만 여쭙 보겠습니다.

[(가)]

- ① 마을 벽화의 훼손 실태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벽화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③ 마을 주민들이 예의를 지키며 마을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 ④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벽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 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주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쩐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 ①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②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③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④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⑤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6. 다음 작문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작문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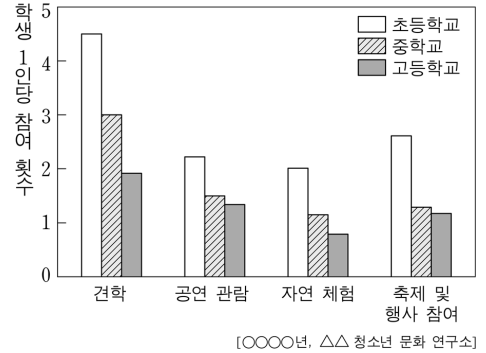
오늘 작문 과제는 ‘가족에 대한 글쓰기’였다. 가족은 친숙한 소재라 쉽게 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였다. 고민 끝에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무작정 떠오른 생각들을 나열해서 쓰다 보니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글을 쓰다 보니 그간 어머니를 오해해서 빚어진 갈등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사랑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 ‘어떤 내용에 관심을 보일까?’, ‘내 글에 공감할까?’ 나는 마치 예상 독자가 곁에 앉아 있는 듯, 스스로 묻고 답하며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 다음,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니, 글이 완성될 때까지 힘은 들었지만 글은 훨씬 나아진 것 같았다.

- ① 글쓴이는 예상 독자인 어머니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을 썼다.
- ② 글쓴이는 필요에 따라 글의 표현과 내용, 개요 등을 고쳐 가며 글을 썼다.
- ③ 글쓴이는 글의 주제에 따른 통일성이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하며 고쳐 썼다.
- ④ 글쓴이는 내용 생성과 관련한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상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글쓴이는 가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린 후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교 급별 체험 활동의 연간 참여 현황



(나) 고등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순위	체험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비율
1	시간이 없어서	53.5%
2	비용이 부담되어서	42.9%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38.5%
4	필요 및 흥미를 못 느껴서	31.4%

※ 복수 응답 반응 조사

(다) 전문가 의견

청소년 체험 활동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체험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 단체의 비용 지원 및 학교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7.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이 청소년기의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자치 단체, 학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8. 고등학생에게 체험 활동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홍보 문구를 작성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나)의 자료에 제시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반영할 것.
- 문답법을 사용할 것.

- ① ○○지역 문화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체험 활동 무료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첨부하오니 바로 확인하세요.
- ② ○○복지 회관에서 학생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험 활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할게요.
- ③ 체험 활동의 여러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 ○○청소년 상담 센터 홈페이지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 ④ ○○시청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을 성심껏 도와드려요.
- ⑤ 유익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나 보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이때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그 내용이 2~3배는 더 강력하게 ㉣ 저장되어진다고 한다.

㉤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ㄴ.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한다.
-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 ㄹ.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으로 고쳐 쓴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저장된다고'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ㄹ, ㅂ'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뱃'과 '밑'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지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 습 자 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 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을】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된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라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sim 780\text{ nm}^*$ 정도인데 보라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직경 $0.1\sim 1\text{ nm}$ 정도), 먼지 미립자, 에어로졸*(직경 $1\sim 100,000\text{ nm}$ 정도) 등과 부딪치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이리(Rayleigh) 산란’과 ‘미(Mie) 산란’으로 구분된다.

레이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 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그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보라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라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라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만약 태양 빛이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에 의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잘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산란되어 하늘의 파란빛은 상대적으로 옅어진다.

미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 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 산란으로 설명된다. 구름 입자(직경 $20,000\text{ nm}$ 정도)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면 모든 무지갯빛이 혼합되어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노미터: 물리학적 계량 단위. $1\text{ nm} = 10^{-9}\text{ m}$.

* 에어로졸: 대기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16.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란의 원리와 유형
-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
-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 ④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
- ⑤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광선의 파란빛은 보라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 ②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 ③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 ⑤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의 산란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A 도지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비가 오기 전 대기에서는 직경 $10\sim 20\text{ nm}$ 의 먼지 미립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하였는데, 비가 온 후에는 그것이 관측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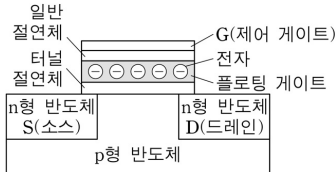
(나) B 도시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은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 높은 하늘을 보니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text{ 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 ① A 도지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 것은 미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겠군.
- ② A 도지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 산란이, 비가 온 후에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났겠군.
- ③ B 도지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
-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레일리 산란 때문이겠군.
- ⑤ A 도시의 비가 온 후의 하늘과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모두 미 산란이 일어났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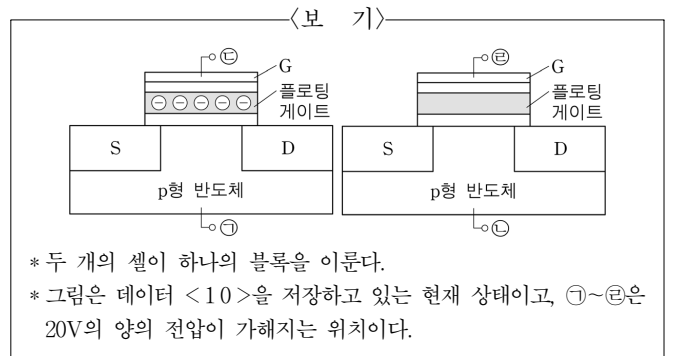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 밑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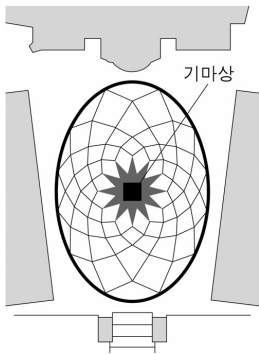
21. 밑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1단계	2단계
①	㉠	㉤
②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켈란젤로는 타원형의 ㉠ 캄피돌리오 광장을 설계하여 로마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광장 중앙에는 옛 로마 황제의 기마상이 놓여 있고 기마상 밑의 바닥에는 12개의 꼭짓점을 지닌 별 모양의 장식이 있다. 광장의 바닥은 기마상에서 뻗어 나온 선들이 교차하여 ㉡ 만들어진 문양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광장의 구성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대칭적으로 조합되어 정제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광장의 타원형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 놓여 있었던 신성한 돌인 움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 한다. 움팔로스는 형태가 달걀형이고 그 표면은 여러 선들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다각형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움팔로스는 ‘배꼽’을 ㉢ 가리키는 말로 인체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

광장의 전체적인 형태가 움팔로스와 같은 타원형이고 광장 바닥의 다각형이 움팔로스 표면의 다각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캄피돌리오 광장은 그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캄피돌리오 광장은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구현된 공간이기도 하다. 원은 중심과 둘레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둘레를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광장은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을 강조한 공간이다. 광장의 실제 경계는 타원이지만, 사람들이 광장의 어느 곳에서 서 있든 시선은 가운데에 있는 기마상으로 집중하게 되므로 기마상을 광장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 광장의 가운데에 배치된 기마상은 타원이 지닌 두 개의 초점을 ㉣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광장을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 공간처럼 변모시킨 것이다. 타원형의 광장이 집중성을 가진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광장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가 생기게 된다. 위계의 정점은 기마상이다. 주변을 압도하는 세계 지배자의 기마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 위계감은 한층 더 고조된다.

이렇게 광장을 원형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광장의 기마상 아래 놓여 있는 별 장식에 주목하게 되면 광장의 확장된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우주를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회전하며 12개의 구역으로 ㉤ 나누어진 원형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캄피돌리오 광장에 계승되어 북극성은 기마상이 서 있는 별 장식으로, 하늘의 12개 구역은 별 장식의 꼭짓점 개수로 표현된 것이다. 이로써 로마 황제의 기마상은 우주의 중심에 ㉥ 서게 된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원과 원의 조합은 광장 주변의 위상을 높인다.
- ② 미켈란젤로는 신성한 돌인 움팔로스를 광장에 배치했다.
- ③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은 움팔로스의 확산성을 드러낸다.
- ④ 기마상은 잘게 나뉜 기하학적 문양의 비대칭성을 강조해 준다.
- ⑤ 광장 중심에 놓인 별 장식은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23. 캄피돌리오 광장에 구현된 상징적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움팔로스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 ② 타원형의 두 초점이 갖는 상징적 의미
- ③ 원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 ④ 고대인이 생각한 북극성의 상징적 의미
- ⑤ 광장의 기마상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24.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뉴욕의 ㉦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건물의 내부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둘레에 나선형 경사로가 있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최상층까지 올라간 뒤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통형 공간의 벽면에 전시된 작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둘레를 향하는 원의 확산적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로에서 바라보이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원통형 공간은 비어 있으므로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은 없다.

- ① ㉦은 ㉧과 달리,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이 중심을 향한다.
- ② ㉦은 ㉧과 달리, 원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위계감이 강조된다.
- ③ ㉧은 ㉦과 달리, 원의 주변이 중앙 공간의 집중성을 강화한다.
- ④ ㉧은 ㉦과 달리, 원의 중심보다 둘레를 강조한 공간 구성을 보인다.
- ⑤ ㉦과 ㉧은 모두 원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형상을 채택하였다.

25.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제조(製造)된 ② ㉢: 지적(指摘)하는
- ③ ㉣: 소진(消盡)되게 ④ ㉤: 분할(分割)된
- ⑤ ㉥: 기립(起立)하게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냉전의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와중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결과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을 가한 ㉡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기 위해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정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했고, 소련은 이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인 ㉢ 탈수정주의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냉전은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서는 안 되며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 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주의에 따르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 ②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 동기가 냉전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③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구체적 정책 연구가 강조되었다.
- ⑤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7. <보기>의 (가)~(다)와 부합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가)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미국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는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추구했다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4%, 소련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미국이 49%, 소련이 12%였다. 이런 예들은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준다.

- | | (가) | (나) | (다)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30.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학 숙제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야겠어.

우선 목차를 읽어 봐야겠어. (목차를 읽는다.) 이 책은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는 장으로 시작되네. 아마 역사가가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썼을 것 같아. 조금 어렵겠지만 재미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 봐야지. (책을 읽다가 멈춘다.) ‘역사적 사실’. (밑줄을 긋는다.)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구나. 그래, 이진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읽어야겠어. 그러면 나중에 메모를 보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

(읽기를 잠시 멈추고 메모한 내용을 훑어본다.) 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간략히 하면, 역사책을 읽을 때는 일어났던 일보다 그 일을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걸까? 중요한 사건은 어느 역사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 ①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 ②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 ③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며 읽고 있다.
- ④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 ⑤ 책을 읽는 목적과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하였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A]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랏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 ②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4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랏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썩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 물려 닫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족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인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힐!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뒤흔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케작 어깨에 멘 채 화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중략 줄거리] 영어 실력 덕에 미군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권력을 얻는다.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 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 라면야 코빼뜰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아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아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구. 꿇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니다, 쑥발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덩썩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 꿀쩍 양치를 한다. ㉦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 ② ㉡: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 ③ ㉢: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 ④ ㉤: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36.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감상의
길잡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자.
- 해방 직후의 서울
2. 작중 인물의 태도를 살펴보자.
- 방삼복은 해방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몰락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임.
3. 작중 인물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A]

-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②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찜 먹고 알 먹는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까.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도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죽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A]

38.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머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머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머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40.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豐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육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실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홀겉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결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결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닌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45.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2	13	②	3	25	④	2	37	①	2
2	⑤	3	14	⑤	2	26	③	2	38	②	2
3	④	2	15	⑤	2	27	④	2	39	①	2
4	②	2	16	①	2	28	①	2	40	③	3
5	⑤	2	17	③	2	29	④	3	41	③	2
6	①	2	18	③	3	30	④	2	42	④	2
7	④	3	19	①	2	31	②	2	43	①	3
8	⑤	2	20	②	2	32	②	2	44	⑤	2
9	③	2	21	③	3	33	①	3	45	④	2
10	②	2	22	⑤	2	34	③	2			
11	④	2	23	②	2	35	③	2			
12	③	2	24	③	2	36	②	3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문제지

국어 영역 (B 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거친 돌이 다듬어져 조각이 되듯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홀수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국립공원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에 1990년대 이후 국립공원 내에는 케이블카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탐방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는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탐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추가 유치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연 훼손을 염려하지만, 최근에는 설치 공법이 발달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보 탐방객들 중 일부를 케이블카가 흡수한다면 등산로 주변의 자연 훼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공법이 발달해도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죠?

찬성 1: 음 그렇긴 하죠.

반대 2: 지주, 선로,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곧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A]

찬성 1: 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2: 이상 확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등산객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찬성 측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흡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이는 근거 없는 예측일 뿐입니다. 기대 이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국립공원에 더 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찬성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
(후략)

1.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논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③ 논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④ 논제와 관련한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논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짝 지은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산의 경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 내려서 정상 봉우리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면서 정상 주변의 원시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설치 공법의 발달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케이블카 설치로 새로운 샛길이 형성되어 탐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반대	정류장의 입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자연 환경의 훼손보다 미관을 해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3. [A]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탐방객들이 굳이 돈을 내고 케이블카를 탈까요?
- ② 인공물의 설치가 자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 ③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있습니까?
- ④ 국립공원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기존 케이블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5]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삼촌, 진로에 대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삼촌을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메일로만 여쭙 보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 훨씬 좋은데요. ㉠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

삼촌: 그래, 오늘 얘기 도움이 좀 됐니?

민수: 그럼요. 지난번 대학에 다니는 선배에게 비슷한 얘길 들
었을 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 만화가인 삼
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

삼촌: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강바람이 참 좋구나.
좀 더 걸을까?

민수: 네, 좋아요. 상쾌하고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 좀 전 북
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네요.

삼촌: 응, 그래. 그런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

민수: ㉤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

삼촌: 아, 너희 또래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그때 그렇게 말했지.

민수: 아, 네. 그때 삼촌도 저처럼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삼촌: 응, 그랬었지. 너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갈등이 많았지.

민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삼촌: 괜찮아.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민수: 사실 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데 이 문제로 요즘 좀
서먹해졌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삼촌: 응,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민수: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 전혀 그렇지 않아.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네 심정
잘 알아. 그런데 너처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수: 글썽요. ㉥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애긴 안 꺼내요.

삼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삼촌’이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익체감을 나타냄.①
- ㉡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줌.②
- ㉢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네 말은 ~말이지?” :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 줌.③
- ㉤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
“전혀 그렇지 않아.” :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해 줌.④
-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보임.⑤

6. 다음 ‘원문’을 ‘은영’과 ‘서연’이 각각 요약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원문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하지만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20세기 중반에 나무 연필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은영’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연’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 왔지만 오늘날까지 대중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반복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여러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긴밀하게 연결해야 해.
- 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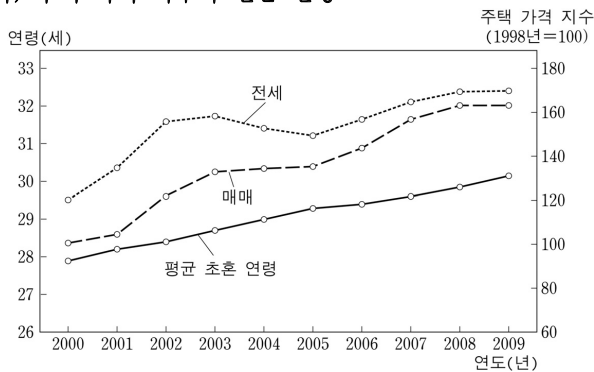
[7~8] <보기 1>은 논설문을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활용하려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오늘 수업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다들 식상해 했어. 그래서 나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고 해. 그러려면 먼저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여 주어야겠지. 그리고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겠지. 결혼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혼 비용,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도 좋을 거야. 이를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을 찾으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

<보기 2>

(가) 주택 가격 지수와 결혼 연령



(나) 결혼 연기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단위: %)

결혼 연기 이유		남	여
경제적 요인	불안정한 직장	17.8	5.3
	낮은 수입	13.0	7.9
	결혼 비용 부담	19.2	15.8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11.0	10.5
부모나 결혼 상대자의 반대		16.4	17.1
결혼에 대한 두려움		8.9	22.4
기타		13.7	21.0
합계		100.0	100.0

7.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논거 자료	○ 연령대별 결혼율에 대한 통계 자료 ① ○ 결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 ○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관련 인터뷰 자료 .. ② ○ 결혼 비용 관련 통계 자료 ○ 청년 실업률,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내용 구성 방향	○ 서론: 저출산 문제와 결혼 연기 현상의 관련성을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밝힘. ③ ○ 본론: 1.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를 제시함. 2.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함. ④ 3. 자료들을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들을 분석함. ⑤ 4. 분석한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결론: 논의를 종합하며 주제를 강조함.

8.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를 해석할 때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 ② (가)는 주택 가격이 결혼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가)를 논거로 활용할 때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나)에서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사회적 요인’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
- ⑤ (나)에서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들은 글의 방향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왼쪽에 서 있는 두 사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키와 몸무게의 상관성에 관한 그래프 등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림 속 상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중심 내용을 정하여 그림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런 후에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 학자를 찾아왔다. ㉢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 생각다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키와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 ②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 ④ 대상의 특징이나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 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한다.
- ③ ㉢은 동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내에서 '당황하다'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1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 ㄷ. '걸으로'를 '[거초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뿔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답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13.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 ㉡

(나)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

○ 접속 표현에 의한 것

(예)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 [둘이 부부인 경우]

⇒ 민수는 진희와 결혼을 했다. ㉢

○ 수식 구조에 의한 것

(예) 귀여운 영희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

⇒ 귀여운 영희의 친구가 놀러 왔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 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 시간인데.”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동생: ㉠ 아, 목마르다.
누나: 자, 물 여기 있어.
- ②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 ㉡ 창문이 열렸네.
학생: 네, 닫을게요.
- ③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행인 A: ㉢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 ④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언니: ㉣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
동생: 알았어. 내 옷 입을게.
- ⑤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제자: 선생님, ㉣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 마실게.

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 말쌈 中國國에 달아 文文字중와로 서르 스몐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홀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홀 ㉢ 노미 ㉣ 하니라 내 이를 爲嬴호야 ㉤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중를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ㅼㅼ 수비 니겨 날로 ㅼㅼ 便便安안하의 ㅎ고져 홀 ㅅ르미니라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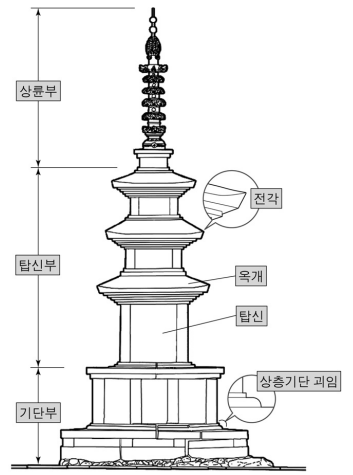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쌈’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가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가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가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가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가 의미 이동의 예야.

탑신 높이의 비례가 3:1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 살며시 추켜올려진 옥개의 전각은 직선 중심의 강한 외관을 반전시키고, 전체 이미지에 유려함과 경쾌함을 더하고 있다.

상륜부는 원래의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의 상륜부는 동시대에 제작된 다른 석탑의 것을 본떠 새롭게 만든 것인데, 연꽃이 장식된 석재들이 쌓아 올려진 형태는 상승감을 자아낸다.

석가탑은 화려함을 절제시켜 전체적인 조형미가 더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걸작이다. 석가탑이 가지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해 옛사람들의 뛰어난 안목과 미감, 그리고 세련된 기교와 전설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석가탑의 구조

17. 위 글에 나타난 ‘석가탑’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기단부와 탑신부, 탑신과 옥개가 서로 잘 어울려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 ② 석재들을 정교하게 짜 맞추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 ③ 기단부는 상층으로 갈수록 폭과 높이를 줄여 상하 균형을 맞추었다.
- ④ 직선적 미감에 곡선미를 가미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석재로 조성했지만 양식적으로는 목탑적 요소도 갖추었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가탑은 석조 예술품이면서도 기둥과 지붕 모양을 갖추어 목탑의 외관을 보여 준다. 또한 수십 개의 석재들이 정교하게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추어져 있어 정치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그리하여 석가탑은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정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완성도가 높아 이후 세워진 석탑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석가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의 하층은 낮지만 넓게, 상층은 다소 좁지만 높게 구성되어 있어 안정감을 준다. 한편 상층기단 괴임의 하단 모서리는 둥글게, 상단 모서리는 각지게 변화를 주어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탑신부는 3층으로, 각 층은 탑신과 옥개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는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폭과 높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드러난다. 특히 1층과 2층

18. 위 글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예술품 감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족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여 형식적 실험성과 창의성을 살핀다.
- ② 조성 시기와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의 공간적 배치와 실용적 가치를 살핀다.
- ③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에 주목하여 작품에 구현된 당대의 세계관을 살핀다.
- ④ 조형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를 살핀다.
- ⑤ 감동이나 교훈적 측면에 주목하여 작가의 가치나 정신세계와의 관련성을 살핀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다.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휴대 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론을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19.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③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 ⑤ 대립하는 두 이론의 장점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20. 위 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 ㄴ.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 ㄷ.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 ㄹ.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 ㅁ.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 내고 있다.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환상이다.

- ①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 ③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하겠네.
- ④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이겠어.
- ⑤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 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와 다른, 불변의 ‘제5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밝기가 변하는 신성(新星)*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별이 불변이라는 통념은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 그 후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의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 ㉤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낮추게 된다. ㉥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며,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인다. 이렇듯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 태양은 이미 50억 년간 빛을 냈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더 빛날 것이다.

* 신성: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

25. 위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질문 1. 태양빛의 근원은 무엇일까?
○ 제5 원소설: 신성 관찰로 인정됨.㉠
○ 불덩어리설: 흑점의 관찰로 제안됨.㉡
- 질문 2. 태양이 계속 식어 왔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음.㉢
- 질문 3.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
○ 핵분열 에너지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부정됨.㉣
○ 핵융합 에너지설: 태양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됨.㉤

26. ㉠~㉥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
② ㉡: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온도가 내려간다.
③ ㉢: 물체의 질량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④ ㉣: 융합 전까지 원자핵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존재한다.
⑤ ㉤: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27.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수소 원자핵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 충돌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여 주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겠군.
② 지구에서 구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③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힘이 필요하겠군.
④ 태양 표면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엄청난 양의 수소를 핵분열시켜야겠군.
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겠군.

28. ㉠,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보 기>—
국어의 어휘 중에는 ‘유지하다-유지되다’처럼 명사인 ‘유지’가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 ① 관통(貫通) ② 보존(保存) ③ 완공(完工)
④ 발열(發熱) ⑤ 개편(改編)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할 때에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혹 일을 했던 경험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 노니는 중에 구하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또 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묻는다면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허세를 부리거나, 어지럽게 글을 읽고, 억지로 자구를 뽑아내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에 뜻이 없는 자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 없다. (중략)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굿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쫓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

29. 위 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3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②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가 생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정신을 차려 또 동산으로 치달아 보니 박 두 통이 그저 남았거늘 한 통을 또 따 가지고 내려와 찌보를 달래는 말이,

“이에 찌보야, 내 일을 불쌍히 여겨라.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설마 박통마다 그러하랴. 이번은 무슨 수가 있을 듯하니 아무 말도 말고 켜 보자.”

찌보 응낙하고 박을 켜다.

“㉠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이 박은 켜거든 금은보화가 함부로 나와 흥부같이 살아 보리라.”

놀부 계집이 섰다가 하는 말이,

“다른 보화는 많이 나오되 흥부 아주머니같이 첩은 행여 나오지 마옵소서.”

놀부 꾸짖는 말이,

“가산 탕진하고 상거지가 된 인물이 썸이 어디서 나오는고? 소사스러이* 굴지 말고 환편 구석에 가 있으라.”

하고 밀거니 당기거니 슬근슬근 타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이번은 아무 소리도 없는지라 놀부가 대희(大喜)하여 찌보더러 왈,

“이번은 다 켜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 아마 수가 있는 박이라.”

하고 급히 타며 보니 박 속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평평한 박뿐이어늘 놀부 대희할 즈음에 찌보가 생각하니,

‘여러 통마다 탈이 났으니 이 박인들 어찌 무사하랴.’

하고 소피하러 가는 채하고 도망질하니 놀부가 찌보를 기다리다 못하여 박통을 도끼로 쪼개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허연 박속이 먹음직하거늘 제 아내를 불러 왈,

“이 박은 먹음직하니 우선 배고픈데 국이나 끓여 집안 식구들과 먹고 기운 나거든 남은 박은 우리 둘이 타 볶세. ㉡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그만치 굶기었으니 필경은 좋은 일이 있지 하날 뜻이 무심할 리가 있나. 술한 재물을 얻을진대 초년고생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서 국이나 끓이소.”

놀부 계집이 기뻐하여 박속을 송덩송덩 썰고 양념을 갖추어 큰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통장작을 지피어 쇠옹두리* 고듯이 반나절을 부르느케 끓인 후 온 집안 식구대로 한 사발씩 달게 먹은 후 놀부는 ㉢ 배가 붕긔하여 게트림*을 하며 계집더러 하는 말이,

“그 국맛이 매우 좋다 당동.”

놀부 계집이 대답하되,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 하니 가장 고이하도
다 당동.”

놀부 처가 대답하되,

“글쎄요. 나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놀부 자식이,

“여보 어머니, 우리들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오냐, 글쎄 그러하다 당동.”

놀부가 꾸짖어 왈,

“너는 요망시리 구지 마라 당동. 무슨 국을 먹었다고 당동
하리 당동.”

놀부 계집은,

“그 말이 옳소 당동.”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머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 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은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아름다운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
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도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 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
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
동, 어찌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 먹은 것을
뉘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
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
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 작자 미상, 『홍부전』 -

* 소사스럽다: 보기에 행동이 줌스럽고 감사한 데가 있다.

* 쇠옹두리: 소의 정강이뼈.

* 게트림: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트림.

31.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타인을 대할 때와 달리 가족에게 권위적인 자세를 취한다.
- ② ‘놀부 처’는 가족의 의견에 동조적이지만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한다.
- ③ ‘놀부 자식들’은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여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④ ‘쎄보’는 기회주의적 인물로서 주인을 배반할 만큼 탐욕스럽다.
- ⑤ ‘왕 생원’은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32. ㉠~㉢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리듬감 있는 표현으로 인물들의 기대감을 노출시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 관용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태도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 ③ ㉢: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친근감을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다.
- ④ ㉣: 인물이 제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되어 상황을 회화화한다.
- ⑤ ㉤: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로 반어적인 효과를 낳아 웃음을 유발한다.

33. 위 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돕겠다며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선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①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②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 ③ 돈키호테는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④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놀부는 세속적 욕망에 빠져 풍자의 대상이 된다.
- ⑤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놀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는 거지 **벽구기**가 프른 거지 **버들숨**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충(至勿聰) 지국충(至勿聰)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느다

<춘(春) 4>

넌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림(靑筇笠)은 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충(至勿聰) 지국충(至勿聰) 어스와(於思臥)

㉡ **무심(無心)**호 **빅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하(夏) 2>

㉢ 슈국(水國)의 ㄹ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저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크지 용여(容與)호자*

지국충(至勿聰) 지국충(至勿聰)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 물ㄹ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석석호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머흔* 구름 호(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ㄹ리온다

지국충(至勿聰) 지국충(至勿聰) 어스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느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닛: 내의.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딩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호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물결 소리.

* 염티: 싫어하지.

* 딴훤: 속세의 시끄러움.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벽구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숨'의 푸르름은 갠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세속에 '무심'한 '빅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외로운 '술'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파랑성'과 '딘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꽤 소묘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흥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A]

㉠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옥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났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옥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옥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오?”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 새에……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 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 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 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송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채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었니?”

“㉢ 어찌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집니다그려.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키겐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 어디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열른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

3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②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영채’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 주는 수단
- ② 인물들에게 고향 상실감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체
- ③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
- ④ 인물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물
- ⑤ 인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

39.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불안석(坐不安席)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켜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C]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이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먼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42. '성에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에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에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에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에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에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 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최종) -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3	①	2	25	①	2	37	④	2
2	⑤	3	14	③	2	26	⑤	2	38	②	3
3	③	2	15	⑤	2	27	③	3	39	①	2
4	⑤	2	16	⑤	2	28	④	2	40	②	2
5	①	2	17	③	2	29	⑤	2	41	⑤	3
6	①	3	18	④	2	30	②	2	42	②	2
7	④	2	19	④	2	31	④	2	43	②	3
8	②	2	20	③	3	32	③	3	44	①	2
9	②	2	21	④	2	33	④	2	45	②	2
10	⑤	2	22	④	3	34	②	2			
11	②	2	23	②	2	35	③	2			
12	③	3	24	①	2	36	①	2			

제 1 교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문제지

국어 영역 (A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거친 돌이 다듬어져 조각이 되듯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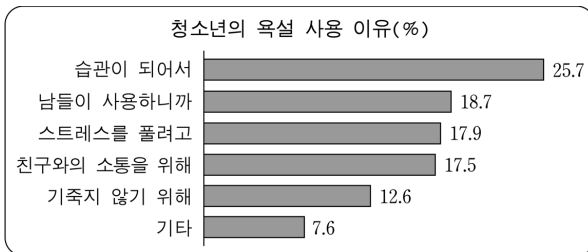
국어 영역(A형)

홀수형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녹음 자료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 우리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욕을 하게 되죠.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마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는 것과 욕설 습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운 말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 전체에까지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①

2.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사전 지식: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 특성: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②

3. 발표 전략

- 녹음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③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④
-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⑤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께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별히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여가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좀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④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⑤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은영’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호: 너 표정이 굳어 보이는데, 괜찮니?
 은영: 그러게 말이야. 난 발표하려면 꼭 이래. 지난번에도 너무 긴장해서 완전히 망쳤는데.
 지호: 맘 편하게 먹어. 다 외울 정도로 준비 많이 했잖아.
 은영: 그러게.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지호: 너같이 활발한 애가 이러니까 의외다.
 은영: 나도 이상해. 이번 발표를 잘하면 곧 있을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지호: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해 봐. 몸도 좀 풀고.
 은영: 그럴까? 앗 발표 직전의 이 불안감, 정말 싫어. 발표 내내 이러면 안 되는데…….

- ① 지금의 느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면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야. 오히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런 감정으로 받아들이.
- ② 남들 앞에서 하는 발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무엇보다도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 ③ 즉흥적인 대처 능력만 믿으면 안 돼. 충분한 연습과 준비를 통해 발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 ④ 과거의 실수를 잊으면 안 돼. 한시라도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⑤ 발표를 회피하려는 것은 좋지 않아. 발표는 네 자신을 부각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4~5]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수: 삼촌, 진로에 대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삼촌을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메일로만 여쭙 보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 훨씬 좋은데요. ㉠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

삼촌: 그래, 오늘 얘기 도움이 좀 됐니?

민수: 그럼요. 지난번 대학에 다니는 선배에게 비슷한 얘길 들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 만화가인 삼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

삼촌: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강바람이 참 좋구나. 좀 더 걸을까?

민수: 네, 좋아요. 상쾌하고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 좀 전 복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

삼촌: 응, 그래. 그런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

민수: ㉣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

삼촌: 아, 너희 또래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그땐 그렇게 말했지.

민수: 아, 네. 그때 삼촌도 저처럼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삼촌: 응, 그랬었지. 너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갈등이 많았지.

민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삼촌: 괜찮아.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민수: 사실 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데 이 문제로 요즘 좀 서먹해졌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삼촌: 응,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민수: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 전혀 그렇지 않아.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네 심정 잘 알아. 그런데 너처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수: 글썽요. ㉤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긴 안 꺼내요.

삼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점]

- ① ㉠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삼촌’이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냄. ……………①
- ㉡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줌. ……………②
- ㉢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네 말은 ~말이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 줌. ……………③
- ㉣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
 “전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해 줌. ……………④
-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보임. ……………⑤

6.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문화재를 훼손하는 담쟁이

전통 건축물에 고풍스런 미관을 더하기 위해 심어 온 담쟁이가 최근 제거되고 있다. 담쟁이는 전통 건축 양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문화재를 훼손하는 유해 식물이기 때문이다. 수천 장의 잎이 건물을 뒤덮는 담쟁이는 줄기가 서로 얽히고설켜 벽면을 따라 위로 10m 이상 자란다. 석조 문화재에 담쟁이가 무성하면 습기가 많아져 돌의 부식이 빨라지고 돌 틈으로 줄기가 뻗어 들어가 원형이 훼손된다. 또한, 담쟁이는 잔뿌리가 1cm만 남아도 몇 년 뒤 다시 자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조 건>

-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바꿀 것.
-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담쟁이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유해 식물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전해야 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미관만 고려하여 심은 담쟁이가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성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담쟁이와 한국 전통 건축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활용하면,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담쟁이가 질긴 생명력으로 돌 틈에도 뿌리를 내린다는 점을 활용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건물에 유해한 담쟁이가 도시 공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공부에 방해되는 텔레비전 시청도 적절히 하면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7~8] 다음은 교지에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현상: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의식: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기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높음.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 부족 때문임.
- 서술 방향: ㉠

7. ‘글쓰기 계획’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양한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기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킨다.
- 기부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 학생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 학생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8. ‘글쓰기 계획’과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글을 쓸 때, 글의 시작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현상’과 ‘문제의식’을 반영할 것.
-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설의법을 사용할 것.

- 어떤 학생들이 활발하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을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자.
-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기부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주변 친구들을 보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현실이다.
-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핑계로 남의 이쁨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을 탓하기보다는 우선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여유가 있어야만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내서 기부 활동에 참여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왼쪽에 서 있는 두 사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키와 몸무게의 상관성에 관한 그래프 등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림 속 상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중심 내용을 정하여 그림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런 후에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 학자를 찾아왔다. ㉢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 생각다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키와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 ②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 ④ 대상의 특징이나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 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한다.
- ③ ㉢은 동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내에서 '당황하다'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1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볼)
- 종성을 바꾼 경우(밤,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13.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 【…을】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손뼉을 치다/피아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 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 【…을】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① ‘치다¹’과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
의어겠군.
 ② ‘치다¹’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③ ‘치다¹’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④ ‘치다²’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⑤ ‘치다²’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 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 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 시간이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귀가한 후 누나에게) ① 동생: ㉠ 아, 목마르다. 누나: 자, 물 여기 있어.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② 선생님: ㉡ 창문이 열렸네. 학생: 네, 닫을게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③ 행인 A: ㉢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④ 언니: ㉣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 동생: 알았어. 내 옷 입을게.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⑤ 제자: 선생님, ㉤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 마실게.

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 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옷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 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 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 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 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 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
었어.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323년 사망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과감함과 용맹 그리고 요절은 이미 고대에 그에 대한 여러 전설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대 저술가들이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2세기에 활동한 세 역사가들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역사가인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편이고, 쿠르티우스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친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천품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겸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중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이다. 그러나 전자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반면, 후자는 고향에서 신관으로 일했기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과거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 당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평가에 내재하는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아리아노스와 대조적인 평가를 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쿠르티우스가 활동한 1세기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황제는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화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공화정을 주도했던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더 지나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제정은 확립되었고, 그는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라도 지배자에 대해 충성의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가 쓴 작품은 결국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의 맹세였던 것이다.

16. 위 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플루타르코스는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책을 썼다.
- ② 아리아노스와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 시대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아리아노스는 로마의 공직자였기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 ④ 플루타르코스와 쿠르티우스는 다 같이 로마의 속주 출신이라는 동질감을 지녔다.
- ⑤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이자 찬미의 대상이었다.

17.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 ① 역사가는 당대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 ② 역사가는 서술 대상과 거리를 두고 냉엄하게 판단한다.
- ③ 역사가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 ④ 역사가의 역사 해석은 개인적 가치관과 시대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⑤ 역사가의 역사 서술 목적은 교훈을 주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18. ㉠~㉢이 서술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 (가) 페르시아의 수도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는 욕망을 억제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예전에 가졌던 자제력과 금욕은 타락하여 거만과 방탕으로 변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내세우는 페르시아 왕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 (나) 식사 때의 알렉산드로스는 다른 어떤 왕보다 인자하고 명랑했지만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듣는 사람이 난처해질 만큼 자기 자랑을 했다. 이는 천품 탓이기도 하고, 아침꾼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 (다) 알렉산드로스가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인 클레이토스를 술자리에서의 말다툼 끝에 살해했지만, 클레이토스도 왕에게 무례했던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 후에 곧 자신이 광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가) | (다) | (나) |
| ③ | (나) | (다) | (가) |
| ④ | (다) | (가) | (나) |
| ⑤ | (다) | (나) | (가)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는 GPS*를 주로 이용하여 찾아낸다. 그러나 실내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알아낸다.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영역을 위치 추정 범위라 한다.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런데 만일 두 기지국에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그림 1>의 음영 영역, 즉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실제 통신사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게 기지국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지국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지국의 배치 형태에 따라 중첩 영역이 달라지므로, 이 방법으로는 위치 추정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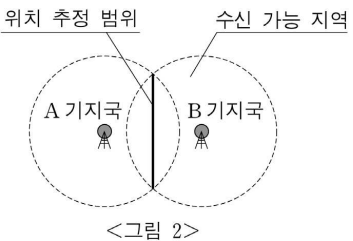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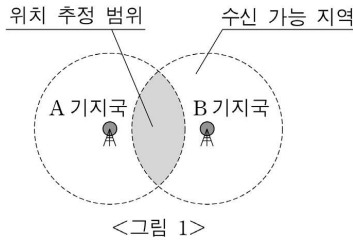
전파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수신된 전파의 세기를 알면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의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지국에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히 전파의 세기만으로는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 간 거리의 비율을 알 수 있다. ㉠ 이 방법은 전파 수신 여부만을 이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그림 2>와 같이 스마트폰은 수신 가능 지역이 겹치는 영역 내에서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 이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된다.

이론적으로 기지국이 세 개인 경우, 각 기지국에서 수신한 스마트폰 전파의 비율들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과의 상대적 거리의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은 한 점이다. 이 점이 스마트폰의 정확한 위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지국과 주변 건물의 배치 등의 요인 때문에 수십 미터 정도 오차가 나타난다.

*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한 기지국의 전파 수신 여부로 추정한 스마트폰 위치 범위는 그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과 같다.
- ② 특정 기지국 주변의 건물 배치에 따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변한다.
- ③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와 정비례한다.
- ④ 대기의 습도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에 영향을 준다.
- ⑤ GPS 위성의 전파는 건물 내부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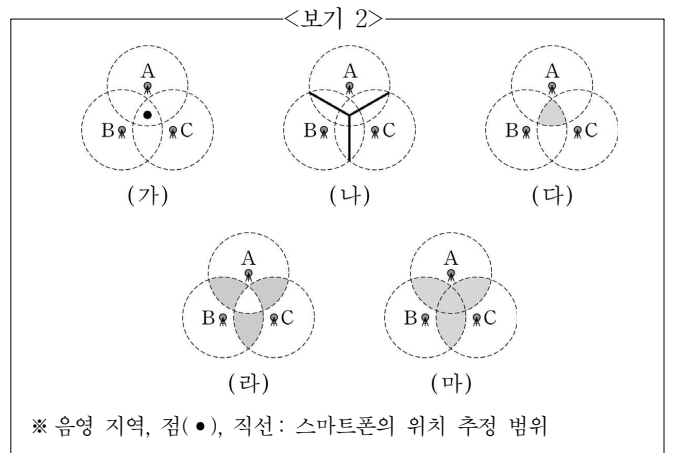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의 중첩이 없다면 기지국 사이를 이동할 때 일시적으로 통화가 끊어진다.
- ② 한 스마트폰의 신호가 두 기지국에서 동시에 수신된다면 두 기지국 사이의 중첩되는 수신 가능 영역이 존재한다.
- ③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다르다면 그 스마트폰은 전파의 세기가 크게 측정된 기지국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 ④ 기지국의 수신 가능 범위가 일정할 때 전파를 수신한 두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위치 추정 범위는 넓어진다.
- ⑤ 한 스마트폰의 신호를 수신한 여러 기지국들의 수신 가능 영역 간 중첩 영역이 좁을수록 위치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21. <보기 1>의 상황에서, ㉠을 이용하여 추정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3점]

—<보기 1>—

방해물이 없는 평지에서 A, B, C 3개의 기지국이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다. 각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700m로 동일하다. 특정 시각에 한 스마트폰에서 송신된 신호가 각 기지국에서 동일한 세기로 수신되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조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릴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신발이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면,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유추 해석이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하면서도, 흙 묻은 맨발로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반대 해석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2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②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③ 문제를 상징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 ④ 단계적 추론을 통해 타당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논의를 전개하였다.
- ⑤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된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은 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다.
- ②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 ③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성격은 그 법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
- ④ 법률과 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극을 법률의 해석으로 메우려 한다.
- ⑤ 법률의 해석에서는 논리적 맥락보다 직관적 통찰을 통해 타당한 의미를 찾아낸다.

24. ‘반대 해석’과 관련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민섭: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네. 담 쪽에 주차해야겠다.
- ㄴ. 유현: 길이 좁아서 써 놓은 것 같은데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냐?
- ㄷ. 민섭: 도로 폭은 충분해. 그보다는 대문을 드나드는 데 불편해서 붙였다고 봐야 돼.
- ㄹ. 유현: 그런데 대문 앞을 오토바이가 막고 있네. 자동차가 아니라서 세워 두었구나.
- ㅁ. 민섭: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생각해야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와 다른, 불변의 ‘제5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밝기가 변하는 신성(新星)*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별이 불변이라는 통념은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 그 후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의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 ㉤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낮추게 된다. ㉥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며,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인다. 이렇듯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 태양은 이미 50억 년간 빛을 냈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더 빛날 것이다.

* 신성: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

25. 위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태양빛의 근원은 무엇일까?

- 제5 원소설: 신성 관찰로 인정됨.㉠
- 불덩어리설: 흑점의 관찰로 제안됨.㉡

질문 2. 태양이 계속 식어 왔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음.㉢

질문 3.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

- 핵분열 에너지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부정됨.㉣
- 핵융합 에너지설: 태양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됨.㉤

26. ㉠~㉥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
- ② ㉡: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온도가 내려간다.
- ③ ㉢: 물체의 질량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 ④ ㉣: 융합 전까지 원자핵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존재한다.
- ⑤ ㉤: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27.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수소 원자핵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 충돌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여 주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겠군.
- ② 지구에서 구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 ③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힘이 필요하겠군.
- ④ 태양 표면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엄청난 양의 수소를 핵분열시켜야겠군.
- 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겠군.

28. ㉣,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보 기>

국어의 어휘 중에는 ‘유지하다-유지되다’처럼 명사인 ‘유지’가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 ① 관통(貫通) ② 보존(保存) ③ 완공(完工)
- ④ 발열(發熱) ⑤ 개편(改編)

[29~30]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예지 : 『신비한 뇌』, 『화학의 힘』, 『떠나자, 여행』. 이 중 한 권을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인데, 어떻게 할까? 처음 접하는 책들이니까 일단 훑어보자. (세 권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본 후)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 책을 소개해야 하니까 다루고 있는 여행지와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해야겠고,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메모하면서 읽어야겠다. (잠시 책을 읽은 후) 모든 여행지가 같은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네. 여행지가 100곳인데 정보량도 많아. 시간 문제나 과제의 성격을 생각해도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 (한동안 책을 읽은 후) 이제 잘 진행되니, 책 소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

승수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권 중 하나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였지. 보자. 첫 번째 책 제목이 『위험한 사회』. 재밌어 보이네. 이 책으로 결정. (첫 장을 읽으며) ‘전자 판옵티콘’이 여러 번 나오네.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더 읽어 보자. (잠시 책을 읽은 후) “판옵티콘의 통제는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판옵티콘’이 또 나왔네. 뜻은 아직 모르겠고, ‘비대칭적 시선’은 뭘까? ‘체화’도 모르겠고, 갑자기 건축 이야기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니 문제네.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래로는 안 되겠다. ㉠ 어떻게 해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

29. ‘예지’와 ‘승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지’는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하였다.
- ② ‘승수’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③ ‘예지’와 ‘승수’는 모두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④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 ⑤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기 전에 과제를 분석하고 읽기 계획을 세웠다.

30. ㉠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론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 ② 읽기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이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어.
- ③ 책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④ 책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예측해 보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⑤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면 의미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A]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객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체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품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채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납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중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읍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뻐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줄기차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서사: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32.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교씨’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며 악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아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환기되는군.
- ⑤ ‘교씨’가 요망한 물건들을 음모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군.

34. ㉠에서 ‘사씨’가 ‘한림’에게 하려는 말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니 그와 어울리지 마세요.
- ②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니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니 좋은 말로 거절하세요.
-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고 하니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 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니 ‘석 낭중’을 보아 그를 믿으세요.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는 것이 뼈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말장고 깊은 소(沼)에 온갖 고기 뛰노누나

<춘(春) 4>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청약립(靑簫笠)은 써 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하(夏) 2>

㉢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 들어라 달 들어라

만경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추(秋) 2>

㉣ 물가에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씩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내: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만경징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용여하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머흔: 험하고 사나운.

*파랑성: 물결 소리.

*염치: 싫어하지.

*진훤: 속세의 시끄러움.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뼈꾸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숲’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세속에 ‘무심’한 ‘백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외로운 ‘술’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파랑성’과 ‘진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갯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울 것 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건디어 내 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흘끗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 자 위에 뉘글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 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칸판에 불을 꺼 둔 채였 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 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 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쩌끔 새어 나 을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 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간간함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 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 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 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야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 왔던 것은 사실이 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 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뒷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중략)

가게 앞에 서서, 썩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웃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찌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변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빗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임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위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겟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겍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37.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②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 ③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 ④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 ⑤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8. ‘김 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대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 ②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립적 인물이다.
- ③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 ④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혜타산적 인물이다.
- ⑤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하는 개방적 인물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간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진다. 이러한 경향은 『원미동 시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실과의 불화로 소외된 ‘몽달 씨’가 비정한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① ‘흑백텔레비전’ 등의 소재는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을 시사한다.
- ② 공간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성한다.
- ③ 한산한 동네 풍광은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 ⑤ 인물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장면에 해당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
 ㉤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리리', '출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41. <보기>의 맥락에서 위 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
 (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①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 ②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 ④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 ⑤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42.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④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 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지요.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 · 허진호 · 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최종) -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②	2	13	⑤	2	25	①	2	37	⑤	2
2	④	2	14	③	2	26	⑤	2	38	④	2
3	①	2	15	⑤	2	27	③	3	39	③	3
4	⑤	3	16	②	2	28	④	2	40	③	2
5	①	2	17	④	2	29	③	2	41	③	2
6	④	3	18	⑤	2	30	①	2	42	④	3
7	⑤	2	19	③	2	31	③	3	43	②	3
8	④	2	20	④	2	32	⑤	2	44	①	2
9	②	2	21	①	3	33	①	2	45	②	2
10	⑤	2	22	①	2	34	②	2			
11	②	2	23	⑤	2	35	②	2			
12	③	3	24	②	3	36	③	2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홀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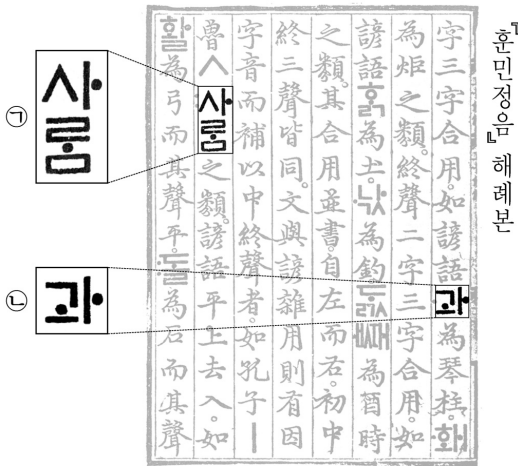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젊은 국악인들이 보여 준 ()을/를 배워야겠어요.

- ① 이타심
- ② 집중력
- ③ 실험 정신
- ④ 절제하는 자세
- ⑤ 순수 지향적 태도

2. (물음) ㉠과 ㉡이 『월인석보』에 쓰였을 경우, 그 서체에 해당
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	사	사	사	사	사
㉡...	과	과	과	과	과

3. (물음)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자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이다.
- ② 원자시계에서 시계추의 움직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원자의 진동이다.
- ③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지구의 자전 주기와 원자시계의 24시간은 정확히 일치한다.
- ⑤ 윤초를 삽입하여 원자시계의 시각을 조정하기도 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은 청취자가 대담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대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담 내용

- 정책의 추진 목적 ①
- 정책의 추진 사례 ②
- 정책의 추진 절차 ③
- 정책에서 보완할 점 ④
- 정책 추진의 어려움 ⑤

5.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극한 점을 제시하며 추가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설명을 보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해 화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조직의 화합’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에는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목재들을 서로 물리도록 꺾어 결합하는 짜 맞춤 기법이 있다.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

짜 맞춤 기법

①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지만 결합 부위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된다. 그에 비해 ㉠ 짜 맞춤 기법은 서로 모양을 맞추는 정교한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 한번 결합된 목재들은 분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맞물린다. 이러한 짜 맞춤 기법에는 ㉢ 목재의 재질이나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집, 가구 등)에 따라 ‘삼장부 짜임’, ‘연귀촉 짜임’과 같은 다양한 기법이 있다. ㉣ 장인들의 아이디어와 땀이 배어 있는 짜 맞춤 기법을 통해 튼튼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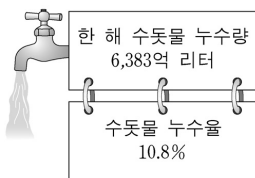
착안점

목재의 연결 ≡ 조직의 화합,
쇠못 박기 ≡ 외부의 개입, 짜 맞춤 ≡ 내부의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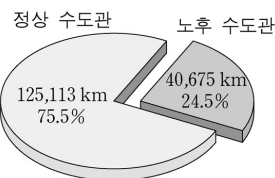
- ① ㉠: 외부의 개입에 의한 화합은 손쉽게 이루어지는 듯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② ㉡: 내부의 합의는 구성원 간에 서로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③ ㉢: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 낸 조직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
④ ㉣: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⑤ ㉣: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조직이 강하게 결속될 수 있다.

7. ‘수돗물 누수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통계 자료



수돗물 누수 현황



노후 수도관 비율

(나) 인터뷰

“수돗물의 누수 현상은 대부분 노후 수도관의 부식으로 발생합니다. 누수를 막으려면 누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수도관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누수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다) 신문 기사

□□신문

○○○○년 ○월 ○일

최근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누수 탐지 기술이 개발되었다. 물이 흐르면 수도관에 일정한 형태의 진동이 발생하는데, 누수가 생기면 진동의 형태가 변하게 된다. 이 기술은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수도관에 미리 부착하여 누수 즉시 탐지하는 것이다.

- ① (가)와 (나)를 활용하여, 수돗물 누수 현황과 노후 수도관 비율을 소개한 후 누수를 감소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현재의 누수 탐지 방법으로는 누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기술이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을 밝힌다.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누수가 진행 중인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노후 수도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⑤ (가)~(다)를 활용하여, 수도관 교체 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다.

8. 예상 독자와 글의 목적이 달라져 개요 (가)를 (나)로 바꾸었다.
(나)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예상 독자	지역 주민
목적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여론 형성
I. 생활 체육 활동 참여 실태 1.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2.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II. 생활 체육 활동의 중요성 1. 개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 2. 지역 사회의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III. 생활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	

(나)

예상 독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입안자
목적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
I. 생활 체육의 필요성 II.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1.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부족 2. 생활 체육 시설 미비 3.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흡 III.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관심 유도 2.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3. 생활 체육 시설 확충 4.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대 IV.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	

- ① (가) 'I-1'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 'I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겠어.
- ② (가) 'I-2'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III'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야겠어.
- ③ (가) 'II'의 하위 항목들을 (나) '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 생활 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타 지역의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나) 'III-2'의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⑤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나) 'IV'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바꿔야겠어.

[9~10] 다음은 신입생에게 기타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기타 동아리 '소리샘'입니다. '소리샘'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솟아나는 ㉠ 샘이므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타를 배우고 연주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기타를 전혀 못 쳐서 ㉡ 망서리 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아리에 오시면 선배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립니다. ㉢ ☞ '소리샘'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기타가 많이 있으니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동아리에 들러 선배들을 찾아 주세요.

우리 동아리는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자율적인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 자율성은 책임 의식을 갖게 하므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와 공연만 하는 다른 음악 동아리와 달리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열고 성금을 기탁하는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9.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뒤 절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을 '샘이라는 뜻으로'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망설이시나요'로 수정한다.
- ③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여 ㉢에 '악보를 읽을 줄 모르 시나요?'를 추가한다.
- ④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맞바꾼다.

10. 초고의 내용을 활용한 홍보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낼 것.
- 다른 음악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
-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것.

- ① '소리샘'으로 오세요. 기타 연주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동아리는 '소리샘'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소리샘'의 멋진 기타 연주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② 고민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소리샘'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③ 기타 연주는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소리샘'은 다른 동아리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음악 동아리입니다.
- ④ 외롭고 우울한 날,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연주해 보세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소리샘'의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 ⑤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세요. 음악과 사회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입니다. '소리샘'에서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11.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1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빠다	주차장에서 차를 <u>빠다</u> .	대다
	(가)	넣다
	적금을 <u>빠서</u>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u>빠다</u> .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u>빠다</u> .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u>빠다</u> .	찾다
④	새집 냄새를 <u>빠다</u> .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u>빠다</u> .	들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려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리라.’

하고 볼 땐 때에 **아궁이**에 들어켰더니, 닛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때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뾰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흡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를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날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켜오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놓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이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산점: 해산의 기미.

* 정문: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일의 처음부터 끝.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뻐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A]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려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어린이의 마음은 건잠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레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B]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렇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굴 아이다, 시굴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판 아이들이, “그래, 시굴 아이야, 시굴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허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뻘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겁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싹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깍정이: 거지.

1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19. ㉠~㉣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함께 ㉢, ㉣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을 무시하고 있다.
- ③ ㉢은 ㉡에 기대어 ㉣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은 ㉡이기는 하지만 ㉣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⑤ ㉢은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2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 ②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 ③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
- ④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22.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반증 없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 ③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임을 명심하라.
- ④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 ⑤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

23. 윗글의 (ㄱ)~(ㄷ)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 내가 오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어제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그저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

(나)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 ① (가)가 확실히 참이어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나)는 거짓이 된다.
- ② (ㄴ)과 (가)가 참임을 밝히는 작업은 모두 경험적이다.
-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ㄴ)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만으로는 참임을 밝힐 수 없다.
- ④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것이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 ⑤ 포퍼에 따르면 ㉠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임은 (가)~(나)의 논증이 아니라 (ㄱ)~(ㄷ)의 논증을 통해 증명된다.

24.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용(使用)되는
- ② ㉡: 실재(實在)할
- ③ ㉢: 입증(立證)할
- ④ ㉣: 인내(忍耐)해
- ⑤ ㉤: 전무(全無)한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 의미에서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움직임의 유무일 것이다. 영화는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 즉 시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이다. 반면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을 알고 있다.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된 것이 만화이기 때문이다. 만일 만화에도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사후에 생성된 것이다. 독자는 정지된 이미지에서 상상을 통해 움직임을 끌어낸다. 그리고 인물이나 물체의 주변에 그어져 속도감을 암시하는 효과선은 독자의 상상을 더욱 부추긴다.

만화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 영화 화면의 테두리인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칸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또한 만화에는 한 칸 내부에 그림뿐 아니라, ㉠ 말풍선과 인물의 심리나 작중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자의 읽기 시간에 변화를 주게 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된다.

영화와 만화는 그 이미지의 성격에서도 대조적이다. 영화가 촬영된 이미지라면 만화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착상되는 사진적 원리에 따른 영화의 이미지 생산 과정은 기술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영화 이미지 내에서 감독의 체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에 비해 만화는 수작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해석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그림의 스타일과 터치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만화 이미지는 ‘서명된 이미지’이다.

촬영된 이미지와 수작업에 따른 이미지는 영화와 만화가 현실과 맺는 관계를 다르게 규정한다. 영화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된다. 이 기록의 과정에는 촬영장의 상황이나 촬영 여건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는 ㉡ 디지털 특수 효과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만화의 경우는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가 현실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화 이미지는 그 제작 단계가 작가의 통제에 포섭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이 점은 만화적 상상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에 작가의 상상력에 이끌려 만화적 현실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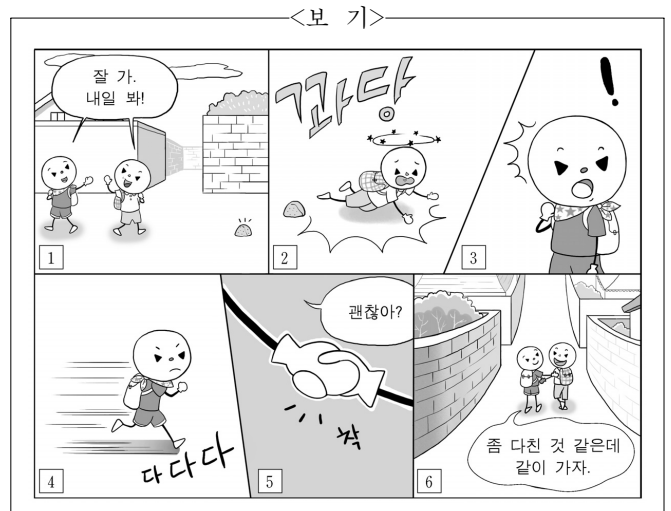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영화는 사물의 움직임을 재현한 예술이다.
- ② 만화는 물리적 시간 재현이 영화보다 충실하다.
- ③ 영화에서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 ④ 만화 이미지는 사진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 ⑤ 만화는 사물을 영화보다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26.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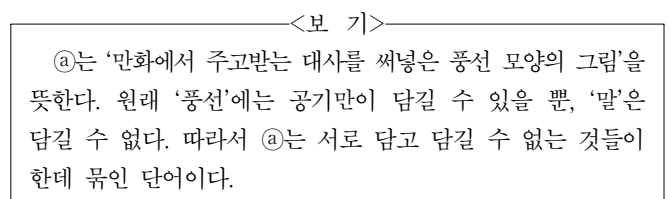
- ① 제작 주체가 이미지를 의도대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겠군.
- ② 영화 촬영장의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겠군.
- ③ 촬영된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제작 방식의 비중이 늘겠군.
- ④ 실제 대상과 영화 이미지 간의 인과 관계가 약해지겠군.
- ⑤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을 도입하기가 더 힘들어지겠군.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 ①부터 칸 ⑥에 이르기까지 각 칸에 독자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유동적이다.
- ② 칸 ②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작중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칸 ④에서 효과선을 지우면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진다.
- ④ 인물들의 얼굴과 몸의 형태를 통해 만화 이미지가 ‘서명된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을 통해 영화의 프레임과 차별화된 만화 칸의 유연함을 알 수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의 ㉠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1점]



- ① 국그릇 ② 기름통 ③ 피주머니
- ④ 물병 ⑤ 쌀가마니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P), 온도(T), 부피(V)의 상관관계를 1몰*의 기체에 대해 표현하면 $P = \frac{RT}{V}$ (R: 기체 상수)가 되는데, 이를 ㉠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한다. 여기서 이상 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이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 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 보자. 이때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V - b$ 가 된다. 한편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 작용으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므로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비례 상수 a가 포함된 $\frac{a}{V^2}$ 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frac{a}{V^2}$ 만큼 줄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압력 변화를 고려하여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면 $P = \frac{RT}{V - b} - \frac{a}{V^2}$ 가 된다. 이를 ㉡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 하는데, 여기서 매개 변수 a와 b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반데르발스가 1910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은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 1몰: 기체 분자 6.02×10^{23}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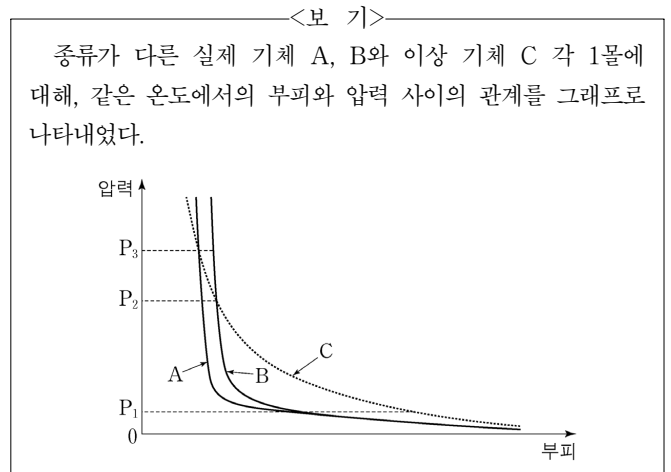
2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상 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 ② 이상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이다.
- ③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
- ④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 ⑤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모두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② ㉠과 달리 ㉡에서는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기체의 부피에 따라 달라짐을 반영한다.
- ③ ㉠으로부터 ㉡이 유도된 것은 단순한 모형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수정한 예이다.
- ④ 매개 변수 b는 ㉠을 ㉡으로 보정할 때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이다.
- ⑤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작다.

3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압력이 P₁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압력이 P₁과 P₂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③ 압력이 P₂와 P₃ 사이일 때,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④ 압력이 P₃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⑤ 압력을 P₃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 B, 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끌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지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 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 ②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 ③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④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었습니다, 읽었느냐,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36.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을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대상과 다른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37.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38. <보기>의 ㉠~㉣을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훈: 어제 집 앞에서 ㉠ 지나가는 선우를 ㉡ 만났어. ㉢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대.

수진: 정말? 이제 마음이 ㉣ 놓이네. 계속 ㉤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문장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동사 어간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낸 소득자 집단을 ㉦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낸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②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③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④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⑤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어 준다.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여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든다.

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1개이다.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개로만 추출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음성을 인식하려면 ㉠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그리고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 입력된 음성 신호를 S_1, S_2, S_3 3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입력 패턴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S_1, S_2, S_3]$ 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일대일 대응시키고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S_1, S_2 \sim S_3], [S_1 \sim S_2, S_3]$ 로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1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의 입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고, 그중의 최솟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솟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3.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성 인식에서 말소리는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본다.
- ②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를 추출한다.
- ③ 개인의 독특한 목소리는 음성 인식을 위한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 ④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의 특징 벡터들을 구간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 ⑤ 패턴 거리가 최솟값인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4. 하나의 기준 패턴에 대해 ㉠을 ㉡에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입력 패턴에 들어 있는 특징 벡터는 3개이다.
- ②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산출되는 패턴 거리는 1개이다.
- ③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1개이다.
- ④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은 2개이다.
- 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4개이면 패턴 비교가 불가능하다.

45. ㉢의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정보의 가짓수의 감소
- ② 기준 패턴을 구성하는 음소 개수의 감소
- ③ 저장된 기준 패턴 가짓수의 감소
- ④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 ⑤ 음소 추정 구간 개수의 감소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한기: 책.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씻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
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 풍입송: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민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幘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흥동: 흥에 겨워 다님.

* 승유편: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 미경: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술발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은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
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술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
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겨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감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문법: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4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 ②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 ③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 ④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 ⑤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48.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 중 시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작자-또 다른 인물-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중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과 중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0.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권'은 신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② 신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보아야겠군.
-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부각한 것이군.
- ④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㉓	1	14	㉔	2	27	㉓	2	40	㉑	2
2	㉑	2	15	㉑	2	28	㉓	1	41	㉕	2
3	㉔	2	16	㉑	1	29	㉕	2	42	㉑	1
4	㉓	2	17	㉒	2	30	㉕	2	43	㉓	2
5	㉑	2	18	㉕	2	31	㉒	3	44	㉓	2
6	㉕	2	19	㉔	2	32	㉕	2	45	㉔	2
7	㉔	2	20	㉒	3	33	㉓	3	46	㉒	2
8	㉒	2	21	㉕	2	34	㉓	2	47	㉔	2
9	㉓	2	22	㉒	2	35	㉑	2	48	㉒	1
10	㉕	3	23	㉔	3	36	㉕	2	49	㉔	2
11	㉑	2	24	㉔	2	37	㉒	2	50	㉒	2
12	㉕	2	25	㉑	2	38	㉔	2			
13	㉒	2	26	㉔	2	39	㉓	2			

제 1 교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삶의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의 발표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택전의 유래
- ② 택전 동작의 멋
- ③ 택전의 전승 과정
- ④ 택전 수련의 절차
- ⑤ 택전 보유자의 조건

2. (물음) 대화에서 다룬 그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일상의 체험에서 받은 인상이 드러난 그림
-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
- ③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그림
- ④ 그림에 대한 동서양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그림
- ⑤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3. (물음) 강연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도	표정
첫 번째 자료	감정을 드러내려 함	감정이 드러남
두 번째 자료	㉠	㉡

- | | |
|--------------|----------------|
| ㉠ | ㉡ |
| ① 감정을 숨기려 함 | 감정이 드러남 |
| ② 감정을 숨기려 함 |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
| ③ 감정을 드러내려 함 | 감정이 드러남 |
| ④ 감정을 드러내려 함 | 본래와 다른 감정이 드러남 |
| ⑤ 감정을 드러내려 함 |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책의 판매량 증가 여부
- ② 전자책의 장점
- ③ 남녀별 선호하는 전자책의 분야
- ④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의 종류
- ⑤ 전자책 구매량의 연령층 순위

5. (물음)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인 통념을 비판하며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사람을 사례로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기 장인은 먼저 무엇을 위해 옹기를 만드는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흙을 골라 채취한다. 그다음에는 흙을 매만지고 반죽하여 흙가래를 만든다. 이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되도록 두드리며 몸체를 만든다. 이때 구조상 각 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분이 잘 연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몸체를 만든 후에 장인은 옹기를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 장인들은 옹기에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무늬를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좋은 옹기는 장인의 솜씨와 정성이 깃들어 기능성과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착안점 흙 ㄴ 글감, 옹기 ㄴ 글, 장인 ㄴ 글쓴이

- ①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
 ②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
 ③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④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
 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
7.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학생 대상의 응급 처치 교육을 활성화하자.

I. 서론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대처 능력 부족

II. 응급 처치의 한계 ㉠

1. 인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임.
2. 회복 및 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됨.

III.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부족
2.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
3. 강사의 시범 보이기엔 그친 교육 내용 ㉡

IV.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 ㉢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확대
2. 학생 체험을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
3. 유행성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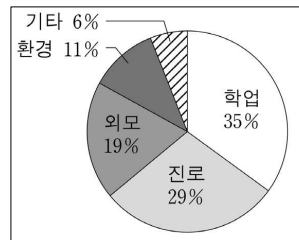
응급 상황의 종류와 발생 빈도 ㉤

- ① ㉠: 하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응급 처치의 의의'로 수정한다.
 ② ㉡: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V-2'와 맞바꾼다.
 ③ ㉢: 'III-2'를 고려하여 하위 항목에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을 추가한다.
 ④ ㉣: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⑤ ㉤: 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대체한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학생의 고민 내용 조사



(나) 희망 상담자에 대한 학생의 요구 조사

순위	내가 선호하는 상담자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자
1	친구	교사
2	선배	선배
3	교사	친구

(다) 연구 보고서

-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일회에 그친 상담보다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가 쌓이면서 상담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 서로 상담할 경우, 선배는 학습 동기를 심어 주고, 학습 방법 습득에 도움을 주어 후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가): 학생들이 주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들어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고민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을 밝힌다.
 ② (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들어 상담자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③ (다): 일회적인 만남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담 효과가 커짐을 들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④ (가),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함을 들어 교사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⑤ (가), (다):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학습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들어 선배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9.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청산도의 바다

하늘과 바다, 산이 모두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청산도’. 그곳은 산비탈을 따라 놓인 논과 밭,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나지막한 집들과 돌담길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섬이었다. ㉡ 나는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사 진에서 본 적이 있는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전체에 구불구불한 돌담이 이어져 있는 상서리로 갔다. ㉢ 상서리 사람들은 매우 바빠 보였다. 층층이 쌓아 올 린 돌담은 소박하게 지어진 농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포 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구들장 논은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풍경 이다. 구들장 논은 산비탈을 깎아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안 에 돌을 넣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다 위에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만든 것이다. 이는 흙이 귀한 섬에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 섬사람의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내게 선사한 곳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가 보고 싶다.

- ① ㉠은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꿔야겠어.
 ② ㉡의 내용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③ ㉢은 문단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④ ㉣은 문장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그 위에’로 바꿔야겠어.
 ⑤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맨 앞에 ‘청산도는’을 추가해야겠어.

10. 작문 시간에 ‘친구를 칭찬합니다’를 주제로 간단한 문구를 작성 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대상이 되는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
 ○ 역설법을 활용할 것.

- ① 시각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김○○을 칭찬합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② 토요일마다 경로당에 가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장○○을 칭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웃음꽃, 할머니의 마음에는 행복꽃. 이번 기회에 우리도 힘을 보태시다!
 ③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박○○을 칭찬합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 덕분에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녀가 예쁘게 보입니다.

- ④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정○○을 칭찬합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 문화재를 알리는 일에 당신도 함께하세요.
 ⑤ 사회 복지 시설에서 과학 실험 봉사를 하는 최○○을 칭찬 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돕는다면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ㅘ, ㅙ, ㅚ, ㅜ, ㅠ’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ㅖ, ㅞ’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 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됐다

- | | | | |
|-------|----|-----|---|
| | ㉠ | ㉡ | ㉢ |
| ① 패다 | 팬 | 패었다 | |
| ② 패다 | 팬 | 패었다 | |
| ③ 패다 | 패인 | 패었다 | |
| ④ 패이다 | 팬 | 패었다 | |
| ⑤ 패이다 | 패인 | 패었다 | |

1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허를 내들었다.
 (→ 안쓰러워하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禮)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자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원래 군자는 정치적 지배 계층을 ㉢ 가리키는 말로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소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군자와 소인을 도덕적으로도 구별하였다. 사리사욕에 ㉣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소인과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군자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군주는 군자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자가 당시 지배 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는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참되고 미더운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 살피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육예(六藝)를 고루 익혀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독려했다.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제후국의 패권 경쟁이 심하던 시대였다.
- ② 공자는 군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 ③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를 실현할 주체로 군자를 제시하였다.
- ④ 공자는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군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보았다.
- ⑤ 공자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법과 형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 위 글에 나타난 ‘예(禮)’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 ②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 ③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 ④ 사회 구성원의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하는 규범이다.
- ⑤ 모든 계층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강조되었다.

15.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소인이 군자가 되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 ㄴ. 군자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유학에서 목표로 삼는 대상이다.
- ㄷ. 소인도 도덕적 수양을 하고 학문적 소양을 갖추면 군자가 될 수 있다.
- ㄹ. 군자와 성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도덕적 본성의 완성 여부를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6. ㉠~㉤를 한자어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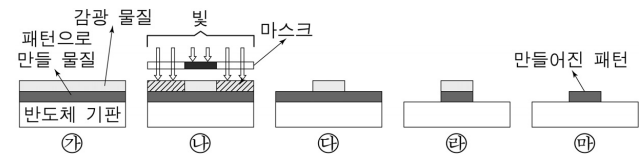
- ① ㉠: 합당(合當)한
- ② ㉡: 의거(依據)하여
- ③ ㉢: 지칭(指稱)하는
- ④ ㉣: 매수(買收)되어
- ⑤ ㉤: 성찰(省察)하라고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원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판화를 종이 위에 찍어 낼 수 있듯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판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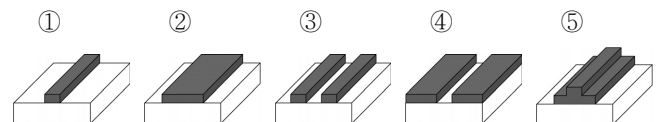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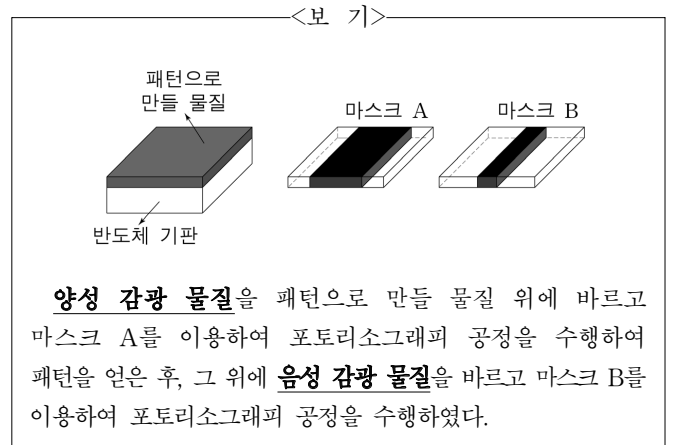
먼저 ㉓와 같이 패턴으로 만들 물질이 코팅된 반도체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고르게 바른다. 감광 물질이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두 번째로, ㉔와 같이 마스크 위에서 빛을 쏘여 준다. 마스크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㉕에서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하면 ㉖와 같이 된다.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을 양성 감광 물질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감광 물질을 음성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㉖에 남아 있는 감광 물질을 보호층으로 활용하여 감광 물질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을 제거하면 ㉗와 같은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㉗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㉑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② 포토리소그래피에 쓰이는 마스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③ 마스크에 패턴을 새겨 넣는 레이저는 판화의 조각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④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다.
- ⑤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

18. <보기>의 모든 공정을 수행했을 때,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될 패턴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9. ㉑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③ 빛을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의 발명을 위해
- ④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 ⑤ 반도체 소자 생산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리까?”
-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 이때 마침 바라를 땡땡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 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이라도 간곳없네.
-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 “모르는 말씀이요.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궤이 하다.”
- [B]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당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몸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 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 [C]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 “오다니 누가 와요?”
- “그저 왔다.”
-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결인 하나 내려왔다!”
-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본단 말가?”
- 문뜬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임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려 와 계시오?”
-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 [E]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나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건어 없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절한 데 뉘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가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 수절원사: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짝든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여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22. [A]~[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 ②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붕어: 붕어빵=잉어: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위 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 ②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외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 ④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5.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수정으로 만든 반지	결혼반지, 금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인삼 가루를 탄 물	바닷물, 설탕물	바닷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 호박떡	호박떡	회갑떡
④	비닐로 만든 옷	겨울옷, 비단옷	겨울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 우유잔	우유잔	돌잔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운탕’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국’에서 유추한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싱건탕’이 ‘맑은탕’보다 국어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③ ‘맑은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 ④ ‘싱건탕’과 ‘맑은탕’은 모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 ⑤ 언중들이 ‘싱건탕’을 짜지 않은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날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흔들고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 2」-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A] └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B] └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C] └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D] └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 이 작은 물결이

[E] └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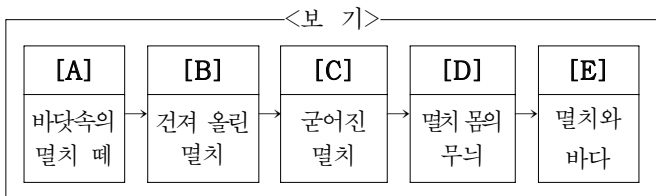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히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꽃꽃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 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숙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3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3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회사원 A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 최근 A 씨는 근무 중 틈틈이 ㉠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축구 경기 동영상을 즐겨 본다. 회사에서는 ㉡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를 허용한다.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A 씨는 ㉢ 친구들과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 경기장에 직접 가서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가끔 새벽에는 ㉤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인터넷 축구 방송을 보면서 친구들과 댓글을 달며 같은 팀을 응원하기도 한다.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⑤ ㉤은 친구들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3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홀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 건 다만 이진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면
 두세 이랑 발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A]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소 빌 이: 소 빌리는 일.

*빈이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십절벽(千尋絕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벼슬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B]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C]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어조 생애: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백조: 모든 새.

*내곳: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봉어 새끼썸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일토 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켜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 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혹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鰓)로 벗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돌려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 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히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④ (가)의 '풍월 강산'과 (나)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37.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송(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원헌: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석송: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와 [C]의 중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암조어(寒巖釣魚)」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名利(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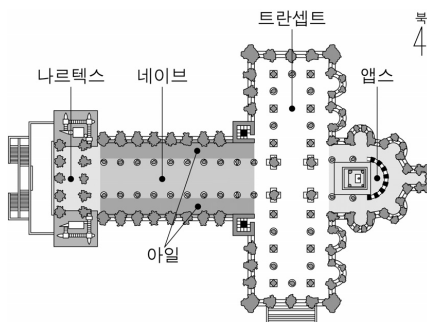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시대에 걸쳐 유럽의 성당은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그 기본은 바실리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쪽 끝 부분에는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나르텍스가 있다. 나르텍스를 지나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네이브가 있고, 네이브의 양 옆에는 복도로 활용되는 아일이 붙어 있다. 동쪽 끝 부분에는 신성한 제단이 자리한 앱스가 있는데, 이곳은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실리카

식 성당은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는데, 네이브의 폭도 넓어지고 나르텍스에서 앱스까지의 길이도 늘어났으며 건물의 높이도 높아졌다.

절정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는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기도 하고,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특히 벽면에는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커다란 창을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하여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풍부하게 퍼지도록 하였다. 이는 서양의 중세인들이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0. 바실리카식 성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물이다.
- ② 4세기경에 출현하여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 ③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의 건축에서 유래했다.
- ④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웅대해지고 화려해졌다.
- ⑤ 실내의 벽과 천장을 종교적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41. ㉠의 실내 공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일은 현관문으로 건물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 ② 나르텍스는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이다.
- ③ 트란셉트는 종교 의식이 확대되면서 추가된 공간이다.
- ④ 앱스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통로이다.
- ⑤ 네이브는 제단이 놓인 곳으로 성당 내에서 제일 신성한 곳이다.

42.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건물 각 부분의 공간 구성에는 인체 비례가 적용되었고, 지붕에 있는 신들의 조각에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외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며, 길게 뻗은 기단 등을 주로 활용하여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다.

- ①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건물에 조각 장식을 새겨 넣지 않았군.
- ②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외부에서 보면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주는군.
- ③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빛을 통해 건물의 내부를 강조했군.
- ④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군.
- ⑤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당대의 미의식이 건물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군.

4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 ②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 ③ ㉢: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 ④ ㉣: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 ⑤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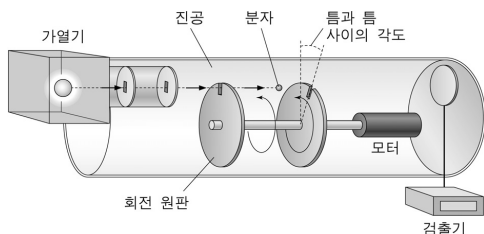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온에서 대기압 상태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며,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분자들의 속력 분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 우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경우에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된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는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로축을 속력, 세로축을 분자 수 비율로 할 때 종(鐘)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속력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꼭짓점 부근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진 분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올리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는 전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자 수와 온도는 같은데 분자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느려져서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하며, 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그림은 맥스웰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⑦ 밀러와 쿨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 두 개의 회전 원판이 놓여 있다. 각각의 원판에는 가는 틈이 있고 두 원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열기에서 나와 첫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더 빠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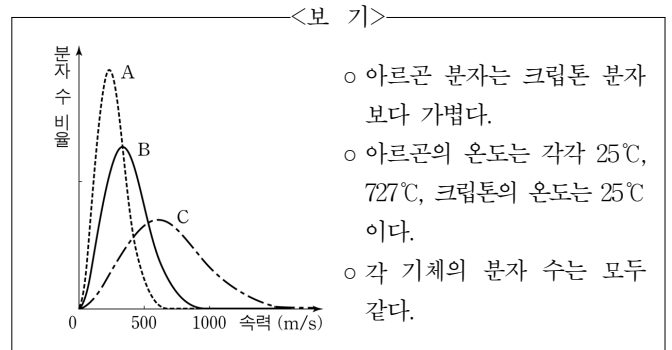
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에 오기 전에 원판과 부딪치며, 느린 분자들은 지나간 후에 부딪친다.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에서 특정한 기체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맥스웰의 이론에 부합하였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자들의 충돌은 개별 분자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② 대기 중 산소 분자 하나의 운동 궤적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
- ③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 ④ 분자의 충돌에 의해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 ⑤ 대기 중에서 개별 기체 분자의 속력은 다양한 값을 가진다.

45. <보기>의 A, B, C는 맥스웰 속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체와 그래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아르곤(25℃) 아르곤(727℃) 크립톤(25℃)

- | | | |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C | A |
| ④ | B | A | C |
| ⑤ | C | B | A |

46. ⑦과 연관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맥스웰 속력 분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첫 번째 회전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검출기에 도달한다.
- ③ 첫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다양한 값의 속력을 가진다.
- ④ 원판의 회전 속력은 같고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빠른 분자들이 검출된다.
-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두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겑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㉔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컷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컷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㉕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뺨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름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㉖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만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레,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레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레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 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쿵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향라 적삼: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옷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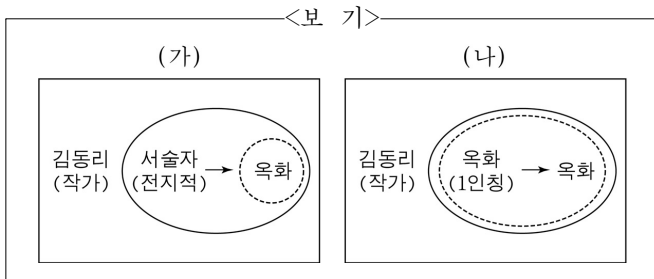
* 통정: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ㄱ에 따르면, 엿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㉔	2	14	㉔	2	27	㉓	2	40	㉓	2
2	㉕	1	15	㉕	2	28	㉕	3	41	㉓	2
3	㉑	2	16	㉔	2	29	㉒	1	42	㉕	2
4	㉔	2	17	㉔	2	30	㉔	2	43	㉔	1
5	㉓	2	18	㉓	3	31	㉕	1	44	㉔	2
6	㉒	2	19	㉒	2	32	㉒	2	45	㉓	3
7	㉒	2	20	㉕	2	33	㉑	2	46	㉔	2
8	㉔	2	21	㉕	2	34	㉒	2	47	㉑	2
9	㉑	2	22	㉔	2	35	㉓	2	48	㉒	2
10	㉔	3	23	㉒	1	36	㉔	2	49	㉓	2
11	㉑	2	24	㉓	2	37	㉕	3	50	㉓	2
12	㉕	2	25	㉑	2	38	㉒	2			
13	㉕	2	26	㉑	2	39	㉑	2			

제 1 교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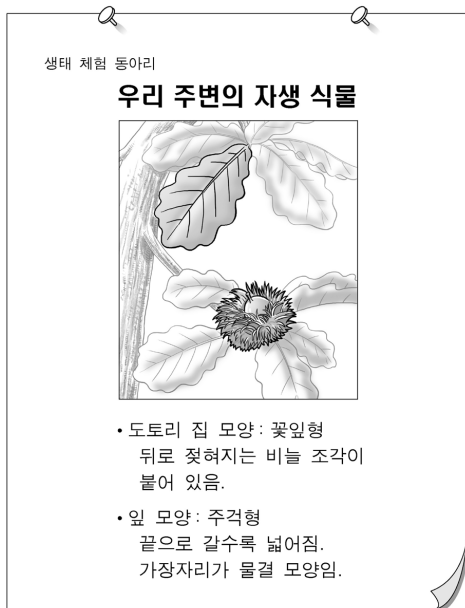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 ③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갖춰야 한다.
- ④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물음) 발표를 위해 만든 그림판 초안이다. 대화에서 언급한
수정·보완 사항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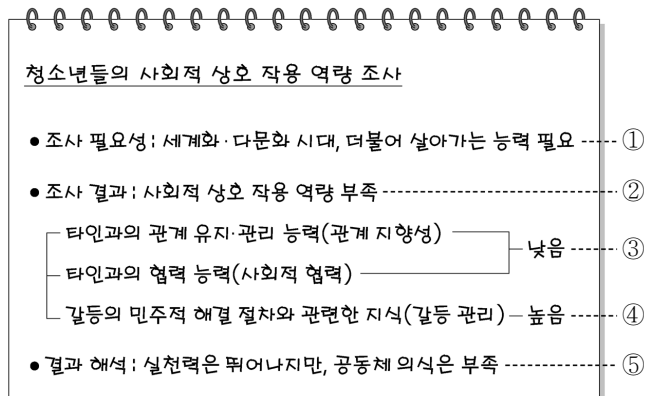
- ① 발표할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다.
- ②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삽입한다.
- ④ 그림 아래에 있는 정보의 순서를 조정한다.
- ⑤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린다.

3. (물음) 뉴스를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침 위의 약국’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군.
- ② 컴퓨터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게 되었군.
- ③ 장기간에 걸쳐 적정량의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투약 효과가 높아지겠군.
- ④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군.
- ⑤ 약물의 조절이 필요할 때 몸 밖에서 신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더 편리하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5. (물음)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을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천적 관점에서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②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 ③ 중립적 자세로 내용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
- ④ 공감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조사 결과는 수용하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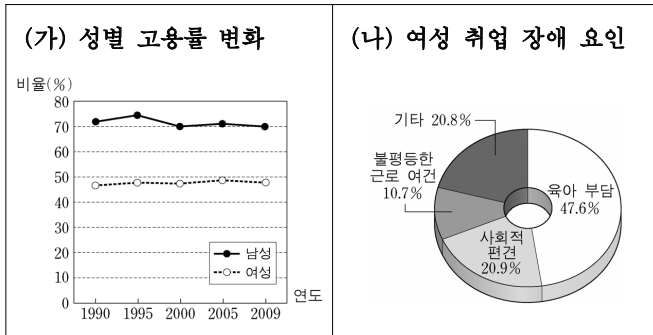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인터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위력적인 전진 속공이 강점인 ○○○ 선수와 팀을 이룬 것이겠죠. 견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저와는 찰떡궁합이었던 셈입니다.
 Q. 그렇군요.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A. 까다로운 강팀들의 경기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습 경기 파트너로 △△ 팀을 선택했는데요,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의 상대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출전을 앞두고는 감독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습 경기에서 나타났던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습니다.

- ①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친구와 팀을 꾸린다.
 ② 상대 팀이 약체로 판단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력을 분석한다.
 ③ 상대 팀의 예상 논거를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④ 모의 토론을 통해 토론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전 대응력을 키운다.
 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

7. '여성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전문가 의견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전적 지원, 휴가 정책,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을 통해 직업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 여성 고용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의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을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서론

1. 청소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
 2.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 ㉠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

1.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I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문제점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

IV.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 ㉣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2.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

V. 결론

- ① ㉠: 논지 전개상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② ㉡: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수정한다.
 ③ ㉢: IV-1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로 대체한다.
 ④ ㉣: III-3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⑤ ㉤: 주제와 III을 고려하여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한다.

[9~10] 다음은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전에 다녀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전에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빛 공해’의 실태를 보여 주고 적절한 조명을 권장하는 취지에 ㉡ 겉맞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빛 공해’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한다.

㉢ 어두워야 할 밤에 지나친 조명을 받으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식물의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작품 중 특히 도시의 건물 사이에 넘쳐 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무심코 켜 놓은 불빛들이 모여 도시를 끓게 하고 있었다니㉣…….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빛 공해’를 주제로 한 표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전에서 받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나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를 ㉤ 제기 하고 돌아왔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전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은 ‘빛 공해 사진전에 다녀와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은 ‘겉맞은’으로 바꿔야겠어.
- ③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앞 문장과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 ④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로 생략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겠어.
- ⑤ 문맥에 적합하도록 ㉤은 ‘제출하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10. <보기>는 ‘표어 대회’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작성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조명의 불빛
하늘을 슬프게 헤매는 새들의 눈빛
- ②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당신이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
- ③ 거리의 환한 조명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
당신의 손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 ④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의 아름다운 향연
화려한 조명들이 선물하는 사진 속의 예술
- ⑤ 별빛마저 삼켜 버린 숲잎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그림구나! 깜깜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언 +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덕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생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1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 원형으로 젓고)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배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 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건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꽃꽂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뚱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뚱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② '부뚱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③ '부뚱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④ '부뚱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⑤ '부뚱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④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①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인간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과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명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text{MPa}=10^6\text{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sim -3\text{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

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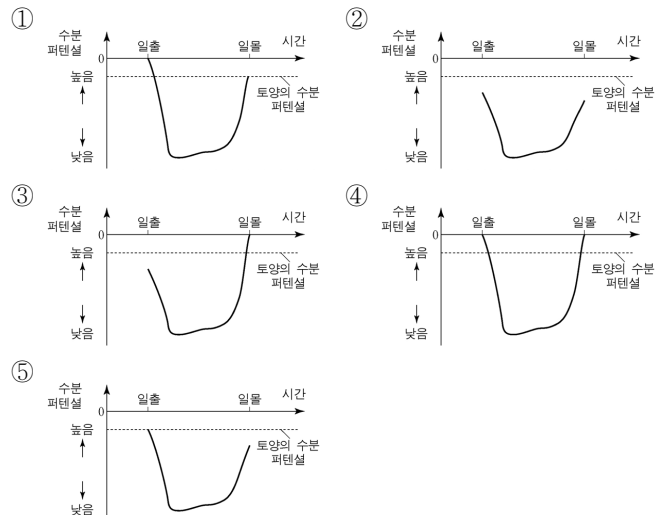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엮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텃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춘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찌라늬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물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표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홀어진 돈들을 굽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표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띄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물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물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쉘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링’,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 조성(造成)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시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의도는 현실을 화면에 담은 촬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 ②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⑤ 이차 프레임은 액자형 서사 구조의 영화에서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50년대 어느 도시의 거리를 담은 이 사진은 ㉠자동차의 열린 뒷문의 창이 우연히 한 인물을 테두리 지어 작품의 묘미를 더하는데, 이는 이중 프레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① ㉠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군.
- ② ㉠가 없다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되었군.
-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에 시선이 유도되는군.
- ④ ㉠ 안의 인물은 멀리 있어서 ㉠가 없더라도 작품 내 존재감이 비슷하겠군.
- ⑤ ㉠가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뀌더라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겠군.

3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한 그림에서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이 인물을 가두고 있는데, 팔과 다리는 틀을 빠져나와 있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②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은 항상 닫혀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폐쇄적인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③ 한 그림에서 문이라는 이차 프레임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 뒤, 정작 그 안은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하여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 ④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앞집의 반쯤 열린 창틈으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목격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틈이 한 가정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한 영화는 자동차 여행 장면들에서 이차 프레임인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하여, 외부 풍경을 보여 주며 환경과 인간의 교감을 묘사하는 로드 무비의 관습을 비튼다.

33.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 |
|-------------|-------------|
| ① 결성(結成)되기도 | ② 구성(構成)되기도 |
| ③ 변성(變成)되기도 | ④ 숙성(熟成)되기도 |
| ⑤ 형성(形成)되기도 | |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뻐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도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귀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뿔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녕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①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행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 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 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향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향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기억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훈(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 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진: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진.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꿈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물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물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울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 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 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 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과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쭉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 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①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해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④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⑤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꼭 지켜보았던 한일 마스크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⑥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⑦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홍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인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을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을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어, 저기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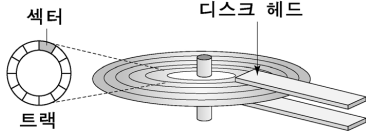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이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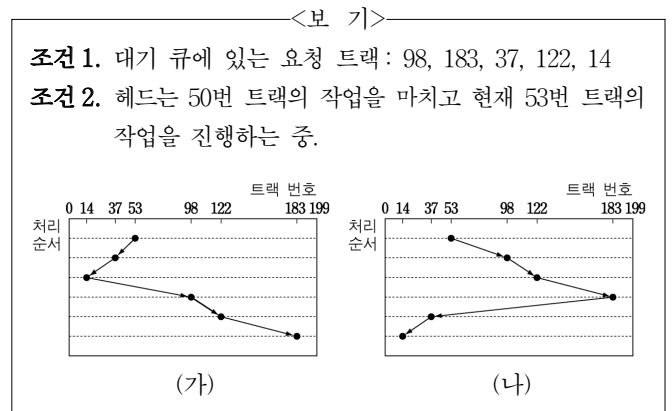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 ②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 ③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 ④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45. <보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 | (가) | (나) |
|---|------|------|
| ① | FCFS | SSTF |
| ② | SSTF | SCAN |
| ③ | SSTF | LOOK |
| ④ | SCAN | LOOK |
| ⑤ | LOOK | SCAN |

46.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 ㉡를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최종)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4	①	2	27	③	2	40	②	2
2	③	2	15	③	3	28	①	1	41	③	2
3	②	2	16	⑤	1	29	④	3	42	①	2
4	⑤	1	17	⑤	2	30	④	2	43	②	2
5	④	2	18	④	2	31	⑤	2	44	①	2
6	②	2	19	①	2	32	④	2	45	③	2
7	④	2	20	⑤	2	33	⑤	1	46	①	3
8	③	3	21	②	2	34	②	2	47	①	2
9	④	2	22	⑤	2	35	⑤	2	48	⑤	3
10	②	2	23	③	2	36	⑤	2	49	④	2
11	⑤	2	24	④	2	37	①	1	50	①	2
12	②	2	25	②	2	38	②	2			
13	④	2	26	③	2	39	③	2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출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을 들은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보리에 관한 옛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겠군.
 - ② 보리 재배는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군.
 - ③ 보리는 씹는 느낌과 맛이 좋아 주요 곡물로 재배되었겠군.
 - ④ 보리는 영양소와 섬유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이롭겠군.
 - ⑤ 보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겠군.

2. (물음)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보기>에 따라 정리할 때, ㉠에
들어갈 것은?



<보 기>

남성들이 쓰나요?	아니요	
예		
양반들이 쓰나요?	아니요	
예		
말총이 재료로 쓰이나요?	아니요	
예		
주로 외출할 때 쓰나요?	아니요	<input checked="" type="text"/> ㉠
예		

- | | |
|-------|------|
| ① 갓 | ② 유건 |
| ③ 전모 | ④ 탕건 |
| ⑤ 패랭이 | |

3. (물음)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군요.
- ② 첨단 과학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고급 기술이군요.
- ③ 감성을 자극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술이군요.
- ④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기술이군요.
- ⑤ 전 세계인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기술이군요.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남학생이 ‘뛰어난 리더’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리더 자신보다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ㄴ. 구성원을 존중하여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낸다.
- ㄷ.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 ㄹ.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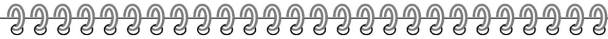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 ⑤ ㄴ, ㄷ, ㄹ | |

5. (물음) 두 학생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자료를 열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은 자신에 관하여 자문자답한 내용을 적은 메모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할 때,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를 탐색하기 위한 자문자답

문. 무엇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답. 과학자가 되어 이웃과 인류의 삶에 이바지하고 싶어.

문. 어떤 인물을 존경하며, 어떤 영향을 받았어?

답.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인술을 편 슈바이처 박사. 지식이나 능력을 남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문.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답. 지역 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학 교실에서 학습도우미로 활동했던 일. 아이들도 친형처럼 잘 따라 주었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있어. 덕분에 나도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지.

문.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기억은?

답. 고 1 때 많이 아파 한 달 동안 입원했던 일.

문. 그 때문에 위축되거나 학업에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어?

답.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 의미 있는 삶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같은 병동에서 새 친구들을 여럿 사귀었는데, 다들 나보고 불임성이 좋다고 했어.

탐색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에 맞게 내용 생성

○ <자기 소개서>의 항목

- 왜 ○○학과에 지원하려 하는가? ㉠
-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
-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은? ㉢
- 대인 관계는 어떠한가? ㉣
-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는? ㉤

- ① ㉠: 과학자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함.
 ② ㉡: 나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추구함.
 ③ ㉢: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함.
 ④ ㉣: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사교성이 좋음.
 ⑤ ㉤: 어려움에 굴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7. <보기>는 '거짓말'에 관한 기사를 학교 신문에 연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기획 의도: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공동체상을 모색함.

◇ 연재 계획

[1회]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

✓ [2회] 거짓말하는 사회와 그 폐해

[3회]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한 제언

◆ [2회] 작성 계획

- '사례 → 원인(구조 및 제도적 차원) → 폐해'의 순서로 전개
- 전체 연재 기사와의 연계성 고려

◆ [2회] 개요

1. 우리 사회의 거짓말 양상
 - 가.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
 - 나. 루머와 흑색선전
 - 다. 논문 표절, 실험 결과 조작
 - 라. 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
2. 거짓말이 성행하는 원인
 - 가. 과도한 업적주의와 성공 지상주의
 - 나. 사회적 발언에 대한 검증 제도의 미비
3.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부족
 - 나. 불신 풍조의 확산으로 사회적 소통 단절
 - 다. 사회 구성원 간 연대감 파괴

- ① '1-가'는 [1회]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실 은폐와 위증'으로 교체한다.
 ② '1-라'는 [2회]의 내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③ [2회]의 작성 계획과 '1'의 내용을 고려하여, '2'에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추가한다.
 ④ '3-가'는 상위 항목과의 관계와 [2회]의 작성 계획을 고려하여, '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⑤ '3-나'는 [3회]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수정한다.

8. 수집한 글감을 바탕으로 <보기>의 글쓰기 구상을 보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주제: 우리 지역의 현재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 ○ 예상 독자: 우리 지역 관청의 관계자 및 지역 주민 ○ 기고 매체: 지역 신문 ○ 주요 내용	의의 • 도서 접근 기회의 확대와 현재의 가치 재발견
↓	방안 • 현재 교환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 개설 및 활용
↓	기대 효과 • 도서 구입 비용 절감 •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

<글 감>

○ 주민들이 현재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버리는 현재이 많다.

○ 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책을 주민들이 가져오면 이를 반값에 사서 마을문고로 활용하는 자치 단체가 있음.

○ 유럽에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색의 현재 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지역을 넘어 문화적 명소가 된 곳도 있음.

○ 우리나라에도 현재 베풀시장이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상설화된 후 지역 명물이 된 사례가 있음.

- ①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지역 관청의 홈페이지'를 '기고 매체'에 추가하자.
- ② 지역 주민이 현재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재 베풀시장 개설'을 '방안'에 추가하자.
- ③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재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방안'에 추가하자.
- ④ 현재 교환 행사의 정착은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하므로, '출판 시장에 활력 부여'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 ⑤ 지역 특성을 살린 현재 교환 행사가 정착되면 지역이 문화적 명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9~10] 다음은 문화재 답사기를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내소사의 역사 소개 → 대웅보전의 꽃살문 묘사(전체에서 부분으로) → 꽃살문의 의의 서술 → 감상'의 순서로 전개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

○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

답사 둘째 날,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로 향했다. 정내에 들어서니 유서 깊은 대웅보전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 꽃살문에는 연꽃, 모란, 국화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꽃잎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특히 왼쪽에서 셋째, 여섯째 문은 다른 문들과 꽃문양의 배치가 달라 눈길을 끌었다. ㉡ 아래쪽에는 꽃봉오리가, 위쪽에는 활짝 핀 꽃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면 대웅보전에는 가운데 칸에 네 짝, 좌우 칸에 각각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모든 문의 문살은 빗살이 교차된 모양이며, 각 교차점 위에 꽃들이 얹혀 있는 듯했다. 꽃살문은 전체적으로 나무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소박하고 단아해 보였다.

불가에서 꽃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특히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새긴 꽃살문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 주는 것 같았다. ㉢ 더구나 모란의 꽃말은 '부귀'라고 한다. 꽃살문은 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장식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9.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째 문단에 '내소사의 창건과 변모 과정'을 추가한다.
-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꾼다.
- ③ ㉠은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 부분으로 옮긴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사진은 '꽃살문'이 잘 드러난 것으로 바꾼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소사의 꽃살문은 고운 자태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문화재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 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자주 해야겠다.
- ③ 내소사의 꽃살문에는 장식과 상징의 기능이 모두 있었다. 꽃살문 처럼 조상들의 미의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일석이조'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계승해야겠다.
- ④ 내소사의 꽃살문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엄숙하게 꾸짖고 있었다. 문화재에 담긴 조상들의 여유와 넉넉함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 ⑤ 내소사의 꽃살문으로부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대신 ‘가벼운, 큰’ 등이 쓰일 수 있고, ‘짐’은 ‘돌, 책임’ 등과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ㄴ과 같이 ‘가벼운, 큰’ 등이 ‘무거운’을 대신하여 쓰이기 어렵고, ㄷ에서 확인되듯이 ‘무거운 짐’과 달리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즉, ㉠ ‘무거운 침묵’은 고정된 형식으로 ‘정적이 흐르는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 ㄱ. {무거운/가벼운/큰……} {짐/돌/책임……}
 ㄴ. {무거운/*가벼운/*큰……} 침묵
 ㄷ. 짐이 무겁다./침묵이 *무겁다.
 *는 부자연스러운 어휘.

- ① 꽃다운 나이, 높다란 나무
 ② 진정한 친구, 싹누런 들판
 ③ 차가운 공기, 막다른 골목
 ④ 뜨거운 눈물, 새파란 젊음
 ⑤ 팽팽한 대결, 가벼운 발걸음

12.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와 달라야 하는군.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닷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셨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전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 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 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얇아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A]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굴 일으켜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
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
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
처럼 버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13.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점]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
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
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
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18. 위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19.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언어 : 세계
- ㉡. 명제 : 사태
- ㉢. 논리적 그림 : 의미 있는 명제
- ㉣. 형이상학적 주제 : 경험적 세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 내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다.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음원이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반면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 치우치면 소리는 오른쪽 귀에 먼저 도착하므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주파 대역에서 ㉣ 일어난다. 고주파의 경우 소리가 진행하다가 머리에 막혀 왼쪽 귀에 잘 도달하지 않는 데 비해, 저주파의 경우 머리를 넘어 왼쪽 귀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이다.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1,000 Hz 이상인 고음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데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소리는 컷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머리 측면과 컷바퀴의 굴곡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 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같은 소리라도 소리가 귀에 도달 하는 방향에 따라 상호 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수평 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의 차이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의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는 간섭에 의해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 작아지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음원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는 감각 기관이다.
- ② 청각 체계는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 ③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 ④ 소리 그늘 현상은 머리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 ⑤ 반사된 소리의 간섭은 소리의 주파수 분포에 변화를 일으킨다.

22.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 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 ② 이어폰을 통해 두 귀에 크기와 주파수 분포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수평 방향의 공간감이 느껴진다.
- ③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 해져서 음원의 방향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 ④ 컷바퀴의 굴곡을 없애도록 만드는 보형물을 두 귀에 붙이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할 수 없다.
- ⑤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음원의 수평 방향 지각에서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23. <보기>에서 ㉠~㉥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은영이는 이어폰을 이용한 소리 방향 지각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컴퓨터가 각각 하나의 원리만을 이용해서 합성한 소리를 들려준다. 은영이는 ㉠ 멀어져 가는 자동차 소리, ㉡ 머리 위에서 나는 종소리, ㉢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 ㉣ 오른쪽에서 나는 저음의 북소리, ㉤ 왼쪽에서 나는 고음의 유리잔 깨지는 소리로 들리도록 합성한 소리를 차례로 들었다.

- ① ㉠은 소리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점점 작아지도록 했겠군.
- ② ㉡는 컷바퀴와 머리 측면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 소리가 두 귀에 들리도록 했겠군.
- ③ ㉢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겠군.
- ④ ㉣는 특정 주파수 분포를 가진 소리가 오른쪽 귀에 먼저 들리도록 했겠군.
- ⑤ ㉤는 오른쪽 귀에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긴 소리가 들리도록 했겠군.

24. ㉠~㉥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취(聽取)하면 ② ㉡: 치중(置重)하면
- ③ ㉢: 파악(把握)하는 ④ ㉣: 발생(發生)한다
- ⑤ ㉤: 감소(減少)하고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間)'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저런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찌르고 머리를 원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 아침에 발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소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러.”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늉을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失色(大驚失色)
- ⑤ 전전공공(戰戰兢兢)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면, ㉠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①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면 | |
| ②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면 | |
| ③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면 | |
| ④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면 | |
| ⑤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면 | |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글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진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A]

[B]

[C]

[D]

[E]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고개.

(다)

얕은 곳에 ㉠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과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죽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꿈을 둘너 상시과저: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죽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푹푹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끗힐끗 운다.

간(間)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미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갇혔다.

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침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와.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침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푹푹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침지…….

윤 침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을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깅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을 잡아 뺏으며) 이 ㉢이 무슨 ㉢인 줄 알어?

노어부 (덤벼려다가 처의 너무도 험쵸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쭉 뻗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쭉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녀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뭇 때문에 울어들? (㉢을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불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침지, 복망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텔 가요?

분 어미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썩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 가듯 휩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미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댔가 가슴만 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 어머니가 갯가에서 ㉢으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였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침지 ㉥ 먼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 졌지. 자네 한 잔 쭉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

3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 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윤 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⑤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38.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 상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39. <보기>의 ㉠~㉣ 중 [A]의 **꺾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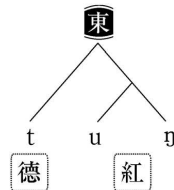
<보 기>

꺾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이다. 처음에 꺾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에 놓여 있었는데,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후 꺾이는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하며, ㉣ '처'가 내면 심정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 관객들은 꺾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 [t]와 '紅'(홍)의 중·종성 [uŋ]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둥]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 [p]와 유성음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41.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고 궁 이 크 다]

B: [koguŋikʰi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데,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데,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은,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43.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로크 시대의 기악은 악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
- ④ 마테존은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는 은비가 습작한 바로크 양식 성악곡의 일부분이다.

㉠ 라단조

대 지를 적시는 눈 물 열리는 신 의 하 늘 모 두가

㉡ 스타카토

아—무 말— 없네

㉢ 올리는 가락

내 맘에 환 희 념 치네

- ① ㉠: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 설정을 위한 것이겠군.
- ② ㉡: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묘사한 것이겠군.
- ③ ㉢: ‘하늘’이 높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겠군.
- ④ ㉣: 말의 장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⑤ ㉤: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46. ㉠과 관련하여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A) 시작하자, 그는 채로 장구를 (B) 시작했다.

- | | <u>A</u> | <u>B</u> |
|---|----------|----------|
| ① | 뜯기 | 치기 |
| ② | 치기 | 켜기 |
| ③ | 타기 | 통기기 |
| ④ | 켜기 | 두드리기 |
| ⑤ | 통기기 | 타기 |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쳐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레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나갔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㉗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㉖ ‘전자를 보는 것’은 ㉘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 ③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 ④ 플레시를 터뜨리는 것은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쏘는 것이다.
- ⑤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48. 위 글에서 ㉙과 구별되는 ㉚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 ②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직접 지각할 수 있다.
- ③ 대상이 너무 작아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 ④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 ⑤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4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 빔이 x 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자 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은 ㉓ $1.87 \times 10^{-24} \text{ kg} \cdot \text{m/s}$ 였다. 그 측정 오차 범위는 ㉔ $9.35 \times 10^{-27} \text{ kg} \cdot \text{m/s}$ 보다 줄일 수 없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 보니 이때 전자의 x 축 방향의 위치는 ㉕ $5.64 \times 10^{-9} \text{ m}$ 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 ①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㉓이겠군.
- ② 전자의 질량을 알면 ㉓로부터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
- ③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㉔보다 커질 수 있겠군.
-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 범위는 ㉔보다 커지겠군.
- ⑤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㉕보다 줄일 수 있겠군.

50. ㉖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단위를 10개로 잡을 때 200개는 20단위이다.
- ② 수확량을 대충해 보니 작년보다 많겠다.
- ③ 바지 길이를 대충 재어 보고 샀다.
- ④ 운동장의 넓이를 가늠할 수 없다.
- ⑤ 건물의 높이를 어림하여 보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4	②	2	27	②	2	40	②	2
2	④	2	15	②	2	28	①	2	41	②	2
3	①	2	16	⑤	2	29	②	2	42	①	3
4	④	2	17	④	2	30	①	2	43	③	1
5	①	2	18	⑤	1	31	⑤	2	44	④	2
6	③	2	19	①	2	32	③	2	45	④	2
7	⑤	3	20	④	3	33	④	2	46	①	2
8	④	2	21	③	2	34	⑤	3	47	⑤	2
9	③	2	22	⑤	2	35	③	2	48	①	2
10	①	2	23	③	2	36	⑤	2	49	⑤	3
11	④	2	24	②	2	37	③	2	50	①	1
12	②	2	25	③	2	38	②	2			
13	⑤	1	26	⑤	2	39	④	2			

제 1 교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한다.
- ②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한다.
- ③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중시해야 한다.
- ④ 남의 잘못을 받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 ⑤ 당장의 도움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물음) 여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군요.
- ② 물리적 인과 관계에 따라 목적을 정한다는 거군요.
- ③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거군요.
- ④ 목적이 없어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⑤ 목적이 정해지면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군요.

3. (물음) 학생의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을 연구하였다.
- ② 과학자들은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그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 ③ 자족적 환경 모형 연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상품이 만들어 졌다.
- ④ ‘에코스피어’는 지구의 바다, 땅, 대기, 생물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순환의 균형이 깨지면 유지되지 못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전시회 포스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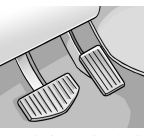
- ① 어느 민속학자의 그림,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다
- ② 옛 그림으로 감상하는, 개화기 조선인의 삶의 모습
- ③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 풍속화가로 성공하다
- ④ 순수 미술의 극치를 이룬, 조선 화단의 자존심
- ⑤ 사진보다 선명한 그림, 시대를 고발한 화가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답변을 요약하고 있다.
- ②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자동차 구성 요소의 기능'에 착안하여 '동아리 대표의 역할'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점		연상한 내용
착안 대상	대상의 주된 기능	
①  <엔진>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 냄.	→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 되도록 추진력을 발휘한다.
②  <브레이크 및 액셀>	상황에 맞게 주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함.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낸다.
③  <핸들>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함.	→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한다.
④  <바퀴>	지속적으로 회전 하여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함.	→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한다.
⑤  <전조등>	야간에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야를 확보해 줌.	→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7. 다음은 여행 중 작성한 일기의 일부이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시구를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인생의 첫 도보 여행. 청명한 10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나는 시골길을 걸었다. 수확을 기다리는 벼들이 시원한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길가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미소 지으며 손 흔드는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다정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시구가 떠올랐다.

㉠

<보 기>

- 앞부분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포함할 것.
- 의인법과 도치법을 활용할 것.

- ① 노란 벼 이삭과 함께 미소 짓는 코스모스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 ② 하늘은 높아 가고 벼들이 익어 가네
반가움 때문인가 내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 ③ 무리 지어 피어서 더 아름다운 꽃들
붉은 단풍보다 더 붉은 꽃들의 향연
- ④ 내내 끓어오르던 내 마음을 식히며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
-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았네

8. 다음은 독서 모임 게시판에 올릴 글의 일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참된 의미는 그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 이해 되어질 수 있지요.



원편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있는 'O'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O'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0123...', '...日入○ズ...', '...NOPQ...', '□○△◇'처럼 여러 가지 맥락을 상상해 보고, 그 속에서 'O'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 'O'는 그 맥락에 따라 숫자 '0', 한글 'ㅇ', 알파벳 'O', 도형 '○'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O'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O'의 안도 밖도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 답니다. 그것이 바로 맥락이지요. ㉢ 글을 쓸 때도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맥락을 통해 글의 참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맥락 읽기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 그러나 이번 모임에서는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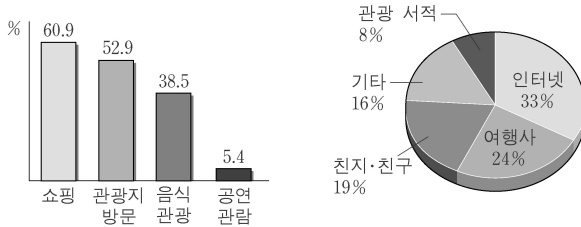
- ①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이해될'로 고친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앞에 '우리가'를 추가한다.
- ③ ㉢은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으로 고친다.
- ⑤ ㉤은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로 바꾼다.

[9~10]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가) 외국인 관광객 설문 조사

1. 방문 기간 중 활동(중복 응답) 2. 여행 정보를 얻은 곳



(나) 신문 기사

관광 상품으로 성공한 공연이 매우 적은 가운데 연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한 공연 '○○'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관객도 8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80% 이상이다. '○○'의 성공 요인으로는 비언어적으로 언어 장벽을 극복했다는 점, 관객을 참여시키는 쌍방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 상모돌리기와 같은 볼거리를 추가하고 희극적 요소를 강화하며 작품을 꾸준히 개선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 신문

(다) 인터뷰 자료

“연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정으로 공연을 하지 않으면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는 불가능합니다. 영세한 극단 입장에서 세금이나 법률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극단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 공연 기획사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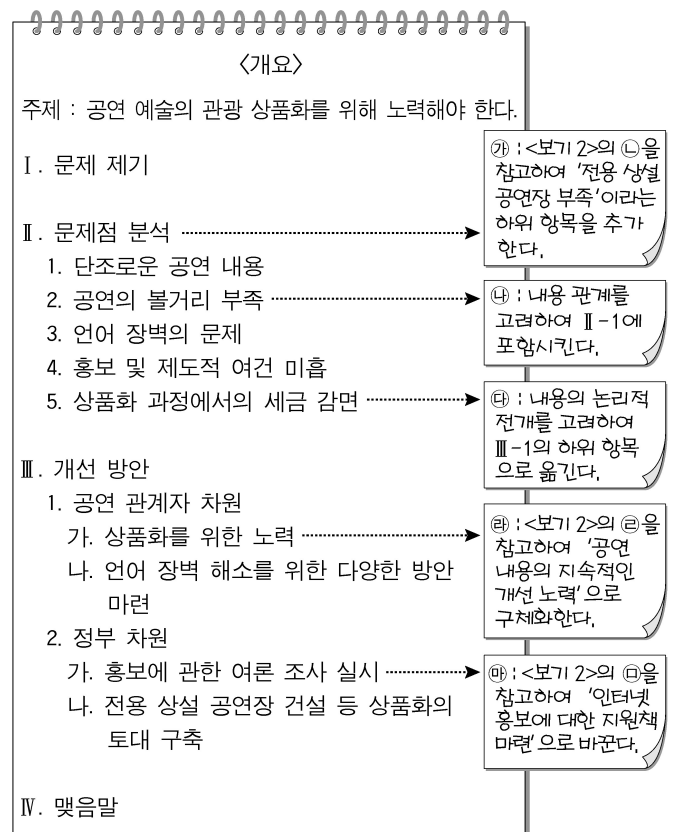
<보기 2>

- ㉠ 공연 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의 공연 관람 실태를 고려할 때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전용 상설 공연장의 확보, 세금 감면 및 법적 지원 등 상품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 대사가 많은 공연의 경우 외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자막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단조로운 공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객 참여 요소를 개발하는 등 제작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는데, 극단 자체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 홍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9. <보기 1>을 자료로 활용하여 <보기 2>와 같이 내용을 생성하였다. 내용과 자료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 ① ㉠: (가)-1과 (다)
② ㉡: (가)-2와 (나)
③ ㉢: (다)
④ ㉣: (가)-1과 (가)-2
⑤ ㉤: (가)-2와 (다)

10. <보기 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보 기>—

청자에게 명령·요청·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얻을 때도 있다.

- ㉠ 가는 길에 이 편지 줄 부쳐 주세요.
- ㉡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동네에는 꽃집이 열 없을 것 같지?
- ㉣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죽 들이켜라.
- ㉤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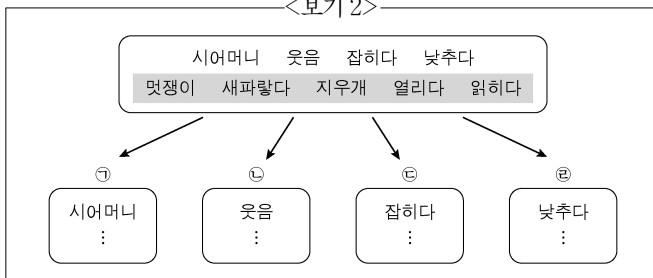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보기 2>—



- ㉠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옹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홍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옹팔과 천달에게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갔다 대 놓고, 가까이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옹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낮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아,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계?”

“아, 있구마, 천달이 저거 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계?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계? 부러 카능계?”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맹기는 사람인 줄 아능계? 허허…….”

“하아,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 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裵)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냐?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작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꿔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뼈다귀가 뭐 어찌고 어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양?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양?”

“.....”

[A]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머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별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 별건 불길 이 구름을 태우며 온 별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 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썸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늘이 서리었고, 두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 곳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뼈다귀라 그 말씀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들땀들한 살점이 곧장 실룩거린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 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징 짓어 댈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건잡을 수 없이 들끓 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찢끔찢끔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웃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짓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갈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 내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 ② ㉡: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 한다.
- ④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5.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군.
- ②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어른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군.
- ③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지속적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군.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① 군수의 편지, 유골 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군.
- ② 하나만 남은 두철의 눈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겠군.
- ③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두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낼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18.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 위 글에서 <보기>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 판단을 내렸다.

㉡

㉢

- | |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⑤ 실용설 | 정합설 |

20.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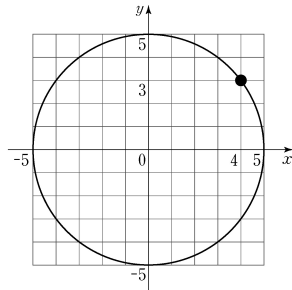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방법서설』의 부록인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좌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으로 그는 해석(解析) 기하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에 대해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두 학문의 발전이 느렸고,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학문이 길동무가 되어 함께 가면서 서로 신선한 활력을 주고받으며 완벽을 향해 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데카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이 좌표계의 가로축은 ‘ x 축’, 세로축은 ‘ y 축’이라고 하며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x 축과 y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 z 축’을 세우면 된다. 데카르트는 방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순간적인 위치를 나타낼 방법을 찾다가 이 좌표 개념을 생각해 냈다고 한다.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 가시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원이 얻어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 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 원 위의 $(4, 3)$ 이라는 점은 $4^2 + 3^2 = 5^2$ 이므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 상황에서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자 직선, 원, 타원 등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였다.



21.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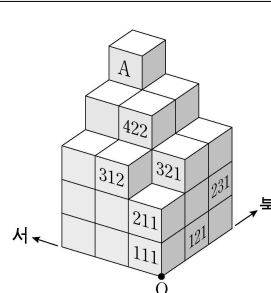
- ① 어떤 점의 좌표로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좌표 평면 위의 원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좌표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
- ④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다.
- ⑤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정식의 해법을 수학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켰다.
- ② 도형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 ③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연역적 증명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 ④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주었다.
- ⑤ 그림을 그리지 않고 대수학을 푸는 보편적인 원리를 구축했다.

2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림과 같은 건물에 있는 31개의 사무실에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여 호수를 지정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사무실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임을 주목한다. 건물의 모퉁이 O점을 원점으로 삼고 k 축은 위쪽, l 축은 북쪽, m 축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한다. 각 사무실의 8개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 (k, l, m) 을 세 자리의 수 ‘ klm ’으로 만들어 그 사무실의 호수로 정한다. 가령, 원점에 접한 사무실은 111호, 그 위층은 211호이다. 그 밖의 몇 개의 사무실의 호수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 ①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된 데 착안하여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기로 하였군.
- ② k 축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니 사무실의 층이 사무실 호수의 백의 자릿수가 되었군.
- ③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지군.
- ④ A 사무실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는 $(5, 3, 3)$ 이군.
- ⑤ 벽면이 맞닿은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 두 개가 같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근대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적 관습은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데 기여한다.
- ② 영화 속 현실은 영화 고유의 재현 방식을 통해 변형된 현실이다.
- ③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 ④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에 익숙해진다.
- ⑤ 새로운 재현 방식의 시도와 수용은 영화적 관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영화의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
- ② ㉧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 ④ ㉧은 ㉦과 달리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였다.
-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 83 거리(낮)

지연,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온다. ㉡지연이 큰길가로 나오자마자 택시가 와서 선다.

S# 84 놀이 공원 인근(낮)

㉢준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급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카메라, 흔들리며 상황을 보여 준다.)

S# 85 놀이 공원 입구(늦은 오후)

지연,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얼굴로 서성인다. ㉥공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입구가 닫히고, ‘폐문’이란 안내판이 걸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중략)

S# 107 병실(낮)

지연, 꽃병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꽂고 있다.

지연: (꽃을 꽂으며) 며칠 있으면 퇴원이네.

준호: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고마워, 지연아.

준호, 지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마주 잡은 두 손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 주는 두 손과 중첩된다.

S# 108 몇 개월 후 결혼식장(오후)

지연과 준호,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퇴장한다. (카메라, 점점 위로 올라간다.)

- ① ㉡는 현실에서는 우연에 해당하지만 영화에서는 당연히 되는 설정이군.
- ② ㉢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현실에서 자주 겪기 힘든 상황을 설정한 것이군.
- ③ ㉣는 긴박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한 카메라 기법이군.
- ④ ㉥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삽입한 것이군.
- ⑤ ㉦는 장면 연결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생략한 것이군.

2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른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는 아니다.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 L2 학습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한다. 많은 경우 오류는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류 중에는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유아의 언어 체계도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같다. 하지만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다. 또한 유아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하지만,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L2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간 언어가 형성될 수 있다.
- ② 중간 언어는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동일한 랑그를 가지고 있다.
- ④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 ⑤ 유아는 L2 학습자와 달리, 배우는 언어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L2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L2 학습 과정에서 자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④ L2의 학습 기간이 같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⑤ L1과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0. <보기>의 ㉣을 ㉠, ㉡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 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함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다. ㉣ 이 언어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언어였다. 초기에는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였으나, 이들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단순했다.

- ① ㉣과 ㉠은 혼종된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② ㉣은 정교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과 같다.
- ③ ㉣과 ㉡는 단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④ ㉣은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는 점에서 ㉡와 다르다.
- ⑤ ㉣은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와 같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은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자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엎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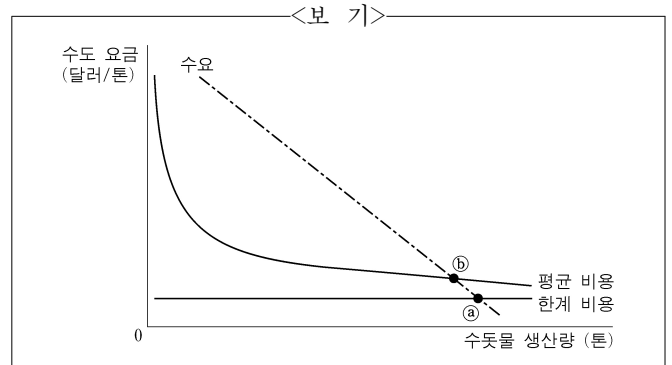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A]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든다 해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b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a에서 b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투입(投入)되는
- ② ㉡: 초래(招來)한다
- ③ ㉢: 추정(推定)하면
- ④ ㉣: 지급(支給)하는
- ⑤ ㉤: 감소(減少)하는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찌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넷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옳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올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쑤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A]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고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B]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넷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
었도다. 아버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선지 한 폭에 ㉠ 오연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늘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
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 소저에게
주며 가로되,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
으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
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삼촌
석 시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시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
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
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시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도 서로 걸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대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이다.”

시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A]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 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 생질녀의 어짙을 듣고 그 아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은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시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을 뵈어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꾀한다고 무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두고 애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詔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시참: 우연히 지은 시가 이상하게도 뒷일과 꼭 맞는 일.

* 조명: 천자의 명령을 적은 문서.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 ③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④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⑤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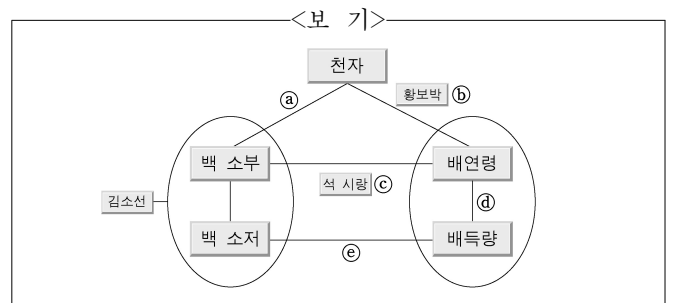
44.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 시랑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랑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폄하하고 있다.
- ③ 석 시랑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 ④ 석 시랑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 ⑤ 석 시랑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46. 위 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다.
- ③ ㉢: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랑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 ④ ㉣: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 ⑤ ㉤: 배득량은 백 소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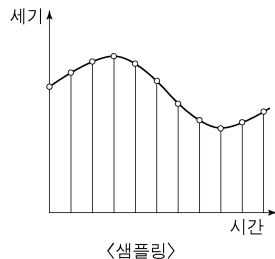
디지털 ㉠ 피아노는 ㉡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 악기이다.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둘은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첫 센서에 의해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내장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가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센서를 이용한다. 강하게 누르면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 두 번째와 세 번째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 CPU는 두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가 끝난 소리 데이터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 장치(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피아노 소리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로 바뀔 것일까? ㉣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녹음

된다.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이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 하지만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가 짧아지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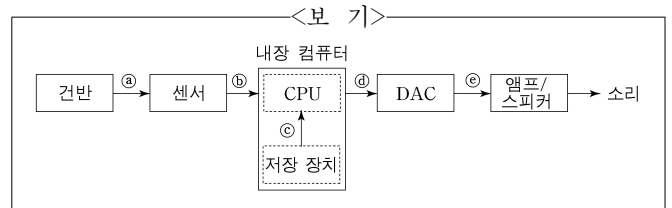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누는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한 표이다.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하나의 부호를 3자리의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000~111까지의 부호가 할당된 8개가 된다. 즉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의 양은 커진다. 이렇게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된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로 미리 녹음되어 저장된다.
- ② 각 건반에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③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된다.
- ④ 소리 파동 모양의 정보는 샘플링을 통해 얻는다.
- ⑤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부호는 서로 다르다.

48. <보기>는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건반의 눌림과 움직이는 속도
- ② ㉡: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
- ③ ㉢: 해당 건반의 소리 데이터
- ④ ㉣: 처리된 소리 데이터
- ⑤ ㉤: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

4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 파동의 모양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② 부호의 자릿수는 소리 표현의 세밀한 정도를 결정한다.
- ③ 부호의 자릿수는 양자화 구간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④ 샘플의 측정값은 양자화를 통해 부호로 바뀐다.
- ⑤ 샘플링 주기는 재생되는 음질에 영향을 준다.

50. ㉡와 ㉢의 의미 관계를 A, ㉣와 ㉤의 의미 관계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예로 옳은 것은? [1점]

A		B	
①	동물:개	나라:국민	
②	비행기:날개	복숭아:과일	
③	버스:택시	구두:신발	
④	고양이:꼬리	사람:인간	
⑤	아들:딸	옷장:가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1	14	③	2	27	①	2	40	③	2
2	③	2	15	④	2	28	①	2	41	③	1
3	①	2	16	⑤	2	29	④	2	42	③	2
4	②	2	17	①	1	30	⑤	3	43	②	2
5	④	2	18	②	2	31	⑤	2	44	④	2
6	②	2	19	①	2	32	④	3	45	③	2
7	①	2	20	④	3	33	⑤	2	46	①	2
8	②	2	21	③	1	34	④	2	47	③	2
9	⑤	2	22	④	2	35	⑤	2	48	②	2
10	③	3	23	③	3	36	⑤	2	49	①	2
11	①	2	24	③	2	37	③	2	50	②	1
12	⑤	2	25	②	2	38	②	2			
13	①	2	26	④	2	39	④	2			

제 1 교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을 들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친구는? [1점]

- ① 노력 없이 성공하여 자만하는 친구
- ②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괴로워하는 친구
- ③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친구
- ④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심이 부족한 친구
- ⑤ 성과를 얻었는데도 더 욕심을 내는 친구

2. (물음) 강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920년대에도 3D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다.
- ② 사람은 두 눈의 시차 때문에 입체감을 느낀다.
- ③ 3D 영상을 만들 때에는 시간을 두고 두 번 촬영한다.
- ④ 서터 방식은 화면에 두 가지 영상을 번갈아 표시한다.
- ⑤ 필터 방식은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낸다.

3. (물음) 인터뷰를 듣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스포츠마케팅의 목적
- ②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
- ③ 스포츠마케팅의 향후 전망
- ④ 스포츠마케팅이 적용된 사례
- ⑤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능력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은 학급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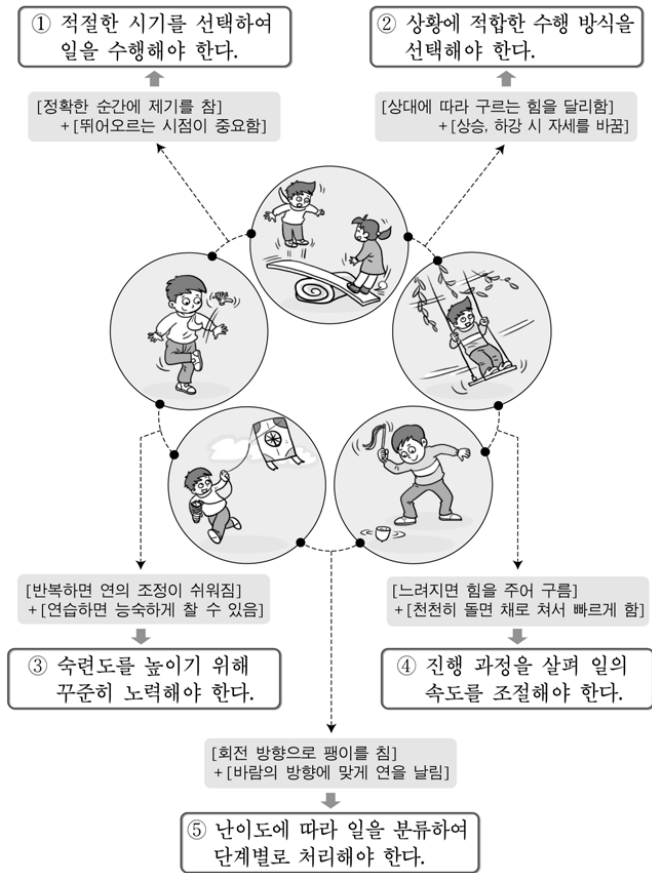
발언자	발언 내용
의장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제안자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하고 설명함. ①
반대자	처음에 1순위 표가 많았던 후보지가 선호도 투표로 인해 탈락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함. ②
제안자	과반수가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함. ③
반대자	1, 2, 3순위 표의 가치가 달리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함. ④
제안자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자고 수정 제안함. ⑤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 ③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며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④ 자신의 입장이 다수를 대변하고 있음을 들어 주장을 편다.
- ⑤ 주장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민속놀이'에 착안하여 '일을 수행하는 원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보기>는 '화가 김홍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여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주제
 - 당대의 사회 풍속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
- 제시 내용 및 전달 방식
 -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자.
 - 발표자의 경험과 작품을 연계하여 표현하자.
 -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화풍의 특징을 발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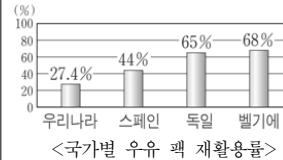
- ①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 낸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제목으로 제시한다.
- ② 현대 미술 작품과 김홍도의 작품을 비교하여 전통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 ③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김홍도를 소재로 한 드라마 장면과 신문 비평의 일부를 보여 준다.
- ④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이 주는 재미와 교내 씨름 대회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관련지어 설명한다.
- ⑤ 당대 사회의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작품의 소재와 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8~9]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8. <보기>는 협동 작문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조하여 <개요>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1> 우유 팩 재활용 실태



(단위: %)

재활용물	재활용률 (%)
일반 폐지	71.8
우유 팩	27.4

<국내의 폐지 재활용률>

<자료2> 우유 팩 폐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우유 팩은 양쪽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붙어 있어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할 때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킨다.

- 연구 보고서

<자료3> 우유 팩 재활용 사업 부진

"우유 팩은 재활용되면 고급 재생지가 될 수 있어 원료비도 절감하고 산림자원도 보존할 수 있는데,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어 재활용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재생지 산업체 관련자 인터뷰

<개 요>

- I. 서론 ㉠
 - (문제 제기)
- II. 본론 ㉡
 1. [실태 분석] ㉢
 - 가. 경제적 측면: 재생지 원료비 증가로 인한 재활용 사업 부진
 - 나. 사회적 측면: 재생지 재활용 사업에 대한 관심 미흡
 2. [원인 진단] ㉣
 - 가. 우유 팩 재생지 산업체의 어려움
 - 나. 우유 팩 재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 다. 우유 팩 재생 공정 시 환경오염 물질 발생
 3. [해결 방안] ㉤
 - 가. 우유 팩 재생지 산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 나.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 다. 우유 팩 재생 공정 시 유해 물질의 처리 기술 혁신
- III. 결론 ㉥
 - (요약 및 전망)

- ① ㉠: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자료1>을 참조하여 우유 팩 재활용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 ② ㉡: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 <자료2>를 참조하여 '환경적 측면: 우유 팩의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③ ㉢: 문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위해, <자료3>을 참조하여 '나' 항목을 '우유 팩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수정한다.
- ④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자료2>와 <자료3>을 참조하여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 본론을 요약하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자원 보존'을 결론의 중심 내용으로 삼는다.

9.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표어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보 기>—

-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점층적으로 드러낼 것.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
우리가 지킨 나무, 지구를 살립니다
- ②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유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우유 팩
- ③ 당신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우리의 자연이 상처 입습니다
- ④ 환경을 위한 당신의 작은 손길
등불 되어 어두운 세상 밝힙니다
- ⑤ 우유 팩 모으기, 생각으로 부족합니다
산림 보호,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10.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감기는 겨울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여름에도 감기에 걸린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냉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 감기를 순 우리말로 고plex이라 한다.

여름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하고 냉방기에 장시간 ㉡ 노출되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발을 꼭 씻어야 한다.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탈수로 인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감기로 인해 ㉣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 따뜻한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 소량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해야겠어.
- ③ ㉢은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그러므로'로 바꾸어야겠어.
- ④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할 때'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의미가 겹치므로 '소량으로'를 생략해야겠어.

1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금속', '비금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형',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 ① ㉠: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② ㉡: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 ③ ㉢: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④ ㉣: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 ⑤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 기>—

- 들⁵ 【조사】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⁹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줌 전에 ㉡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그래요. 그런데 ㉢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희야! 빨리 ㉣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희: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 많이들 컸구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과적 사고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혀내고자 한 사람으로 19세기 중엽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그는 원인을 찾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치법과 차이법이다.

㉠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가] 가령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교의 학생 다섯 명이 장염을 호소하였다고 하자. 보건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불러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다섯 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본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유일한 음식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선생님이 돼지고기가 장염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일치법을 적용한 예이다.

a	b	c	d	→	X
a	c	e	f	→	X
a	d	e	f	→	X
∴	a			→	X

일치법은 왼쪽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X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이고, a, b, c, d, e, f는 여러 가지 선행하는 요소를 뜻한다. a는 X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유일한 요소이므로 a가

X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차이법은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의 연구소에 근무하던 에이크만은 사람의 각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닭의 질병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린 닭들 중에서 병이 호전된 한 마리의 닭을 발견하고는 호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병이 호전된 닭과 호전되지 않은 닭들의 모이에서 나머지는 모두 같았으나 유일한 차이가 현미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병이 호전되지 않은 닭들은 채소, 고기, 백미를 먹었으나 병이 호전된 닭은 추가로 현미를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이의 차이를 통해 닭의 병이 호전된 원인을 현미에서 찾은 에이크만의 사례는 바로 차이법을 적용한 예이다.

일치법과 차이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인 식별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우연히 선후 관계로 일어난 현상을 인과 관계로 오해하거나,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각각 원인과 결과로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에 따라 원인을 찾아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아침에 두꺼비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장대비가 내렸다. 따라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다.
- ② 아이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반점이 생기기 전에는 열이 있었다. 따라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다.
- ③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직장인이 그 원인을 따져 보니 평소와 달리 그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다.
- ④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가 먹은 음식물을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유일한 공통 요소는 A사의 분유였다. 따라서 A사의 분유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다.
- 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시간은 평균 30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에 학력은 평균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시간이 증가한 것이 학력 하락의 원인이다.

14. ㉡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X’는 ‘X’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함.)

- ① $a b c d \rightarrow X$
 $b c d \rightarrow -X$
 $\therefore a \rightarrow X$
- ② $a b c d \rightarrow X$
 $b e f \rightarrow -X$
 $\therefore a \rightarrow X$
- ③ $a b c d \rightarrow X$
 $a c d \rightarrow X$
 $a d e \rightarrow X$
 $\therefore a \rightarrow X$
- ④ $a b c d \rightarrow X$
 $b e f \rightarrow X$
 $c d e \rightarrow -X$
 $\therefore a \rightarrow X$
- ⑤ $a b c d \rightarrow X$
 $a b d \rightarrow -X$
 $b d f \rightarrow X$
 $\therefore a \rightarrow X$

15. ㉢에 유의하여 [가]의 판단을 검토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②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 ③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음식이 있지는 않은가.
- ④ 학생들이 먹은 돼지고기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닭은 그릇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 ⑤ 다른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은가.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혁신의 확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리학에서는 혁신의 확산이 시간적인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을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설명한다. 혁신의 발생기에는 혁신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면, 먼 지역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확산기에는 초기의 혁신 수용 지역에서 먼 지역까지 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진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된다. 혁신 발생원과 잠재적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혁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전염 확산이다. 발생원과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혁신의 확산이 ㉠ 대중 매체보다 주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계층 확산이다. 계층 확산에 의해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거대 도시에서 발생한 혁신은 먼 거리의 대도시로 전파되면서 동시에 거대 도시 주변의 중소 도시에도 전파될 수 있다.

혁신의 수용자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혁신 수용자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개별 수용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 즉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소수의 혁신자, 일정 기간 심사숙고하여 혁신을 수용하는 다수의 전기 수용자,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가 그것이다.

16. **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의 수용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 ②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혁신의 수용자 중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도 있다.
- ④ 수용자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 ⑤ 심화·포화기의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17.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신 미용 기법이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주로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을 통해 전파되었다.
- ② 새로 출시된 금융 상품의 가입자가 경제 뉴스가 아닌 직장 동료들의 추천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다.
- ③ 신개발 농산품의 구매자 수가 증가한 것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 소문에 의한 결과였다.
- ④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 폭주는 주 고객층에 초점을 맞춘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의 결과였다.
- ⑤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한 전문 식당의 분점이 급속히 퍼진 것은 라디오 광고보다 주로 손님들의 호평 덕택이었다.

18.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서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 ㄱ. 한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혁신 확산의 예이다.
- ㄴ.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의 예이다.
- ㄷ. 대도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전화기가 이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것은 전화기의 확산이 심화·포화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ㄹ.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넓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A」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 — 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
나무 하나가 오흑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 — 한 공중
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이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굽고
등 뒤에 서거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 — 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
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
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
즉 — 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웃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 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B」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말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 ② 파초를 위해 ‘중’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의 앞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되’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을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댁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댓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꼬러미 화산댁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댁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현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댁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댁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려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댁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머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댁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죤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머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목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머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목어 봐라!”

머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쇄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단!”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끓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씨늘해 보이는 **헛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 ㉠ 진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먼*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땀처럼 급한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A]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체멋대로 굴러 자고, 쭈뼌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맏머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나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머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눕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누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스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뛴 땀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택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택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섰다. 아들 내외가 꺾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택이』 -

*저거 조먼: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하리갈레: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는 말.

*적산집: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5. ‘화산택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꿀밤떡을 내놓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③ 예의가 없는 머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6.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 ㉠ ㉡ ㉡ ㉢ ㉢ ㉣ ㉣ ㉤ ㉤

2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화산택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 ① 짚세기 : 고무신
- ② 초가집 : 적산집
- ③ 토벽 : 헛가루 벽
-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 ⑤ 수채 : 뒷간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83년 백열전구를 개발하고 있던 에디슨은 우연히 진공관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것은 플레밍이 2극 진공관을 발명하는 ① 토대가 되었다. 2극 진공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필라멘트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는 고온으로 가열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때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라 한다. 이후 개발된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의 필라멘트와 금속판 사이에 '그리드'라는 전극을 추가한 것으로, 그리드의 전압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필라멘트와 금속판 사이의 전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3극 진공관의 증폭 기능이다.

진공관의 개발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나 진공관 자체는 문제가 많았다.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이르러 게르마늄(Ge)과 규소(Si)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그러나 그림 (가)와 같이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비소(As)를 규소에 소량 첨가하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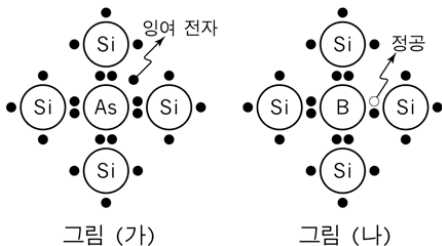
1개의 잉여 전자가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 준다. 이를 n형 반도체라고 한다.

한편 그림 (나)와 같이 규소에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B)를 소량 첨가하면 빈자리인 정공(+)이 생기게 된다. 이 정공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 준다. 이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

p형과 n형 반도체를 각각 하나씩 접합하여 pn 접합 소자*를 만들면 이 소자는 정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p형에 (+)전압을, n형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는 반면, 이와 반대로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한편 n형이나 p형을 3개 접합하면 트랜지스터라 불리는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이때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이렇듯 반도체 소자는 진공을 만들거나 필라멘트를 가열하지 않고도 진공관의 기능을 대체했을 뿐 아니라 소형화도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전자 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소자: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낱말의 부품.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pnp 접합 소자는 그리드를 사용한다.
- ② 진공관은 컴퓨터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 ③ 2극 진공관은 3극 진공관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 ④ pn 접합 소자는 2극 진공관과 같이 정류 기능을 한다.
- ⑤ 진공관 내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전자가 방출된다.

30.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잉여 전자는 원자 간 결합에 참여한다.
- ② 순수한 규소는 (나)에 비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 ③ 순수한 규소를 (가)로 변형시킨 것이 p형 반도체이다.
- ④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여 증폭 기능을 하는 소자를 만들 수 있다.
- ⑤ (가)와 (나)를 접합한 후 (가)에 (-)전압을, (나)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1.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보청기는 음향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마이크로폰, 전기 신호를 크게 만드는 증폭기, 증폭된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환원하는 수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는 1920년대에 개발되었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는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 ① 예열이 필요 없게 되었겠군.
- ② 진공관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줄어들었겠군.
- ③ 트랜지스터가 증폭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겠군.
- ④ 내구성을 위해 보청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었겠군.
- ⑤ 순수한 규소나 게르마늄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었겠군.

32.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준이 되었다
- ② 기초가 되었다
- ③ 기틀이 되었다
- ④ 바탕이 되었다
- ⑤ 발판이 되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당시 유행하였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내용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을 의미했는데, ㉠ 이 시기의 연주는 그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작곡자들은 악곡 속에 그 감정들을 담아내었고, 연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에 드러내기보다는 작품이 갖고 있는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즉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당시에 청중들은 연주를 통하여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영향미학이 작품미학으로 전환되면서 바뀌게 된다. 작품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작품미학의 영향에 따라 작곡자들은 음악이 내용을 ㉡ 지시하거나 표상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음악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절대음악을 탄생시켰다. 작곡자들은 어떤 내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과 반복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곡함으로써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음악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정이 없어지자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려 했고, 이에 따라 연주는 해석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당시 베토벤 교향곡의 관현악 편성을 변형시켜 연주했던 바그너나 말러 등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연주자가 해석한 작품을 ㉣ 감상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구체화된다. 음악을 ㉤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악에 ㉥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음악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자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한 작품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다른 연주자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연주자는 작품을 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제 연주에서는 작품 자체의 충실한 해석에 의해 음악적 의미를 재구성했던 19세기와는 달리,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연주될 때,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며, 이때 청중에게 감상은 ㉦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33.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동원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⑤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34.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서 강조된 것은?

- ① 연주자의 생각과 주관
- ② 작곡자와 연주자의 분리
- ③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 ④ 형식을 강조한 음악의 아름다움
- ⑤ 작곡자가 의도한 객관적 감정의 전달

35.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에 대한 감상 중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에서 베토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 ② <월광> 소나타를 반복해서 들으니 이 곡이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
-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악곡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 ④ 제목 ‘월광’처럼 음악을 듣는 동안 달빛 어린 잔잔한 세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 ⑤ 빠르기와 썸머림이 본래 악곡과 달라 베토벤의 음악에서 연주자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어.

36.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가리켜 보임.
- ②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③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④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 ⑤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29 궁궐 외곽의 작은 문(밤)

㉦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뚫려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고 상궁**: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중략)

S# 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면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악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 **천수** : 막지 마시오! 토악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악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악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악명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 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S# 49 암자 안(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 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 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 나인 : (E)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S# 50 수라간(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 나인의 모습. ㉣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한 나인 : (E)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해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 다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명이야…….

S# 51 암자 안(밤)

박 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 김영현, 『대장금』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회상: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서찰]과 관련지어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나인'은 '박 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②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다.
- ③ '한 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 나인'이 결백하다고 보았다.
- ④ '박 나인'이 '한 나인'에게 알려 준 정보 덕분에 '박 나인'이 살 수 있었다.
- ⑤ '한 나인'은 '박 나인'을 살리려는 시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했다.

39.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각(仰角, Low-angle):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하랴.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단옷에 화용월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암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니, 상당에는 비단 백 필, 하당에는 진주 서 되었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이 각별했다.

이때 무릉촌 장 승상 덕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 두고 날마다 징험하되 빛이 변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죽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 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건히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이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났는가?’ 하며 심분 의혹하나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 승상 덕 부인이 제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 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먹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첩첩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첩첩이 이는 연기 강물에 어리었다. 편주(片舟)를 흘러저어* 종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친히 잔을 부어 오열하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니,

“아아! 슬프다, 심 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함은 인정에 당연커늘 일편단심에 양육하신 부친의 은덕을 죽음으로써 갚으려 하고, 한 가닥 쇠잔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 꽃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 아니 슬플소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속히 와서 흠향함을 바라노라.”

하며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 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는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꾸루룩 소리 하며, 심상한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에 강 가운데로부터 한 줄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해지거늘, 부인이 반겨 일어서서 보니 가득히 부었던 잔이 반이나 없었으므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더라.

하루는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늦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원래 이 부인은 심 봉사의 처 괄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 심 소저가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봉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 소저는 낯선 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이었다. 오색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화를 좌우에 벌여 꽃고, 각 궁 시녀들은 옆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말을 전하는데, 보던 중 처음이더라.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 섬돌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인 줄 알고 왈각 뛰어 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야 어머니와 만날 줄을 알았더라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쭙었다라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 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부친은 뉘를 보고 반기시리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잃은 설움에다 비길소냐. 분노라. 너의 부친 가난에 절어 그 모습이 어떠하냐. 응당 많이 늙었으리라. 그간 십수 년에 홀아비나 면했으며, 뒷마을 귀덕 어미 네게 극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대어 보며, 수족도 만져 보며,

“귀와 목이 회니 너의 부친 같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라. 내 끼던 ㉥옥지환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녕’,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줍치 청홍당사 별매듭도 애고 네가 찼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광한전 맑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나 내 맘대로 못 하니 한탄한들 어이할소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이때 심 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 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으되,

앞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옥궁에 갔네.

안개 어린 먼 바다에 마음도 푸르니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가 없고, 심 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더라.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71장) -

* 흘러저어: 배 따위를 흘러가게 띄워서 저어.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41.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이다.
- ②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③ ㉢: 장 승상 댁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④ ㉣: 심청이 자신의 회생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 ⑤ ㉤: 심청과 옥진 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징표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완판본(71장)에는 장 승상 댁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녀 상봉, 삽입 시 등과 같이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 의식의 발현 등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 ① 옥진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장 승상 댁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군.
- ③ 비석에 새겨진 시는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세간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심청과 옥진 부인이 만나는 대목은 혈연의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옥진 부인이 심청에게 하는 말은 딸을 물에 빠지게 한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군.

43.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뱃’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뱃’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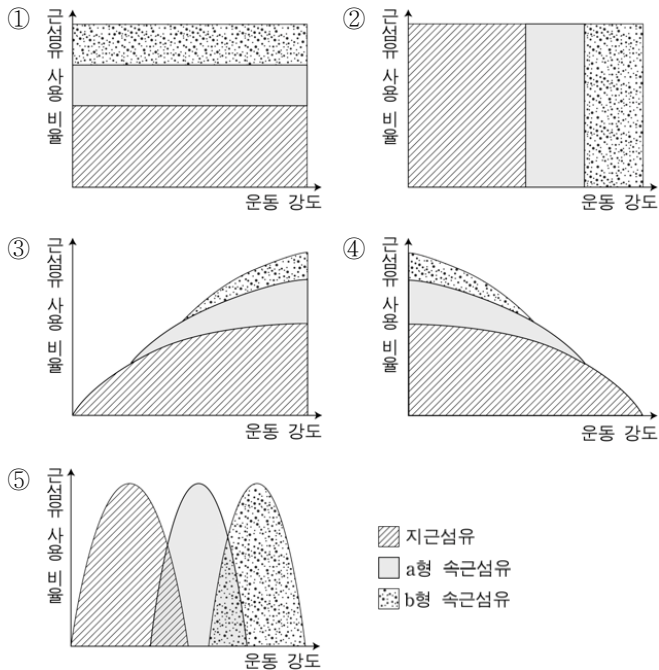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운동 단위는 운동 신경과 근섬유로 구성된다.
- ②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
- ③ 다리 근육을 포함하는 골격근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
- ④ 하나의 운동 신경에 결합하는 근섬유 수가 많으면 근수축력이 높아진다.
- ⑤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지근섬유가 속근섬유보다 많다.

48. ㉠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9.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은 속근섬유 비율이 각각 20%, 50%, 80%이다.

* 단, 세 선수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으며, a형, b형 속근섬유의 비율 및 다른 생리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는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낮다.
- ② B는 C보다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
- ③ C는 A보다 근육의 수축력이 낮다.
- ④ 100m 달리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B이다.
- ⑤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C이다.

50.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가벼운 이불을 준비했다.
- ② 나는 용돈을 탄 지 오래 되어서 주머니가 가볍다.
- ③ 철수는 입이 가벼워서 내 비밀을 말해 줄 수가 없다.
- ④ 아직 병중이니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 ⑤ 사태를 가볍게 보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②	1	14	①	2	27	③	2	40	①	2
2	③	2	15	②	2	28	⑤	1	41	③	2
3	②	2	16	④	2	29	①	2	42	⑤	3
4	③	2	17	④	2	30	④	2	43	①	1
5	①	2	18	③	2	31	④	2	44	③	2
6	⑤	2	19	③	2	32	①	2	45	②	2
7	②	2	20	⑤	2	33	②	1	46	①	2
8	④	3	21	②	2	34	⑤	2	47	⑤	2
9	①	1	22	③	2	35	⑤	2	48	③	2
10	③	2	23	⑤	2	36	④	2	49	②	3
11	⑤	2	24	②	2	37	④	2	50	④	2
12	③	2	25	④	2	38	③	2			
13	④	3	26	⑤	2	39	②	2			